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마지막 날을 위한 기별

연말기도주일, 2024년 12월 6일 ~ 15일

책을 열며

마지막 날을 위한 기별

편집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 성령이 이른 비의 풍부한 능력으로 초기 교회에 부어졌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 있는데,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기적적인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구걸하며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하신 분, 생명의 왕자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절름발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밝힌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들이 로마 당국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보다 살인자(바라바)를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는 그들이 무지로 인해 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의 성취였다고 더 밝힌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은 울려 퍼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도말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19~21)

이것이 마지막 날을 위한 기별인 이유는?

문맥상 이 선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련의 사건이 있다.

1. 회개하라 - 지금
2. 돌이켜라 - 지금
3. 너희 죄(이름이 아니라)가 지워지도록 하라.

4. 언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의 조사 심판의 때에, 새로워지는 때, 곧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성령이 한량 없이 부어질 때이다.

5. 그러면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왜 더 일찍 보내지 않으시는가?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도덕 법의 모든 원칙이 인간의 마음에 회복될 때까지 하늘의 법정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께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요 13:31)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무서운 고난을 위하여 힘을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 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353.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가?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19-21의 단계는 분명하다. 이 기도주간 동안 마지막 날을 위한 이 기별을 깊이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적용하자! 📖

능력을 위한 기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부정확하고 일부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실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의 가장 확고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고 공유해야 할 분명한 기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연말기도 주간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해 주셨다. 우리는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함께 여전히 살아 있다.

“진리의 귀중한 보석은 표면 아래에 있으며, 매 시간의 수색은 온전히 보상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숨겨진 부를 위해 힘써 노력하라. 온 하늘이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과 약속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89.12.3.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초기문집, 63.

이 기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마지막 날을 위한 기별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러한 독서를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은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의 큰 축복을 고립되어 있거나 집에 갇힌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다음 날짜를 기억하자.

금식 기도일: 12월 14일 안식일

선교 연금일: 12월 15일 일요일

주님께서 이 기도 주간 동안 이 기별을 실천하고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진심 어린 갈망에 은혜롭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2024년 연말기도주일

12월 6일 금요일
특별히 신성한 기별 4

12월 7일 안식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0

12월 8일 일요일
회심 15

12월 11일 수요일
죄의 도말 21

12월 13일 금요일
새롭게 하는 때 27

12월 14일 금식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2

12월 15일 일요일
영광의 왕국 37

2024년 기도력 43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특별히 신성한 기별

엘렌. G. 화잇 저서로부터 발췌함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과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야말로 이 범죄한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남에게 보여 주는 모본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썩을 육체와 더러운 욕망을 그분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마땅히 깨닫고 믿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가 믿는 바를 행해야 한다. 이 세상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옷차림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너무 자주 경박하고 시시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언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자주 농담과 익살과 잡담을 하고 부주의 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승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

지 않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들어 시련을 견디어 내지 못하거나 원수를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 않으며 받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은 곳곳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크게 부족 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다음의 중대한 말씀을 감명 깊게 새겨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쉽사리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말 수는 적어지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각기 심판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이 중대한 말씀과 불쌍한 죄인들이 그분의 값진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그의 거룩한 강권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참으신 그

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런 것들을 명상한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 고상한 주제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111, 112.

기회를 소중히 여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 졌는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오,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우리들 자신은 미련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는가? 온 하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는 존귀하신 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깨어 활동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토록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감사를 드러야 한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말로써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더 훌륭한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여행자요 나그네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그분의 신속히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만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저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일하기 시작 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기도에 열중하며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 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자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의 모본(예수)을 따르라. 그대들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대들의 모본이며 그대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그분을 대항한 죄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되셨다.” -초기문집, 113, 114.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생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목적의 놀라운 계시에 일치하여 영혼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품성을 계발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서 멀리 뒤떨어진 생애를 살고 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나라’(잠 14:34)는 말씀이 있다. 과연 죄는 조직과 질서를 파괴한다. 개인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간에 죄가 어디에 있는지 인류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질서, 반목(反目), 적대행위, 원한, 시기심 및 질투심 등이 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 실천할 때 남녀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큰 빛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의의 도덕적인 표준에 대한 시험에 저희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은 진리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생애를 향상시켜야 한다. 성경에 기초를 둔 참된 신앙은 생애에 영향을 끼쳐야 하며 품성을 정화하고 고결케 함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모본을 닮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가정 안에서 봉사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으로 향할 때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교회들은 먼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한다. 교회의 각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시험과 죄 가운데서 방종하게 하는 시험을 거부해야 한다. 교회는 회개와 겸비와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써 순결케 하는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징적인 대속죄일 곧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엄숙한 시간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품성을 완하시키며 성화케 하고 감화력을 순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들은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에 저들이 세상에 끼치게 될 감화력은 얼마나 클 것인가!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가 순결하고 확고한 요지부동의 신앙으로써 항상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세상에 비취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파수꾼으로서 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엄숙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저들은 저희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하며 율법의 요구에 엄격하고 거룩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존대하고 순결과 신령한 생애로써 주님 앞에서 행하면 진리를 선포할 때 따르는 능력이 도처에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함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버리기까지는 결코 어떤 백성이나 개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외부적인 압력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순결성과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며 자신의 생애를 약화시킬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계시어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처럼 백성에게도 임할 것이다. 아, 탄원의 음성과 열렬한 기도가 들려와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

하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고대의 예루살렘 성에 그분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들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게 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일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간절한 회개와 죄를 버리는 일이 없이는 그는 분명히 배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도덕적인 불결과 가증한 죄의 장막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의의 도덕적인 표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죄가 만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며 의를 행한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췌고 음성으로써 옹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범할 때는 허약함과 패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죄를 버림

교만의 죄를 버려야 하며 의복에 대한 모든 사치성을 극복해야 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창고에 들여놓아야 할 돈에 대하여 들여놓지 아니한 엄청난 도둑질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이다. 개혁 사업과 참된 회개를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역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의 처신이 이 때를 위한 사업과 일치하므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겸비와 금식과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다.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계속적으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사 21:12)고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크신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다. 수천 가지 수만 가

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단체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기호와 특징이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 뿐이다. 인간의 종교도 있고 하나님의 종교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인간과 교리와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으며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장엄하고 종결적인 사업을 성취시키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 국가들은 그 중심부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돕는 힘이 거두어질 것이다.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죄의 사람이 제정된 안식일(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법왕권의 억압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계의 압박하는 세력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꺾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77~380.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교회증언 1권, 619.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 손바닥에 새겼’(사 49:16) 다고 말씀하셨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우리는 죄인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를 만한 산 증언을 갖기 원한다. 설교하는 일은 지나치게 많으나 봉사하는 일은 너무도 적다. 우리는 거룩한 열정과 감동을 원한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렬한 사상이 필요하다. 많은 목사들은 저희 자신의 품성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절반은 마비된 상태에 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아담에게 요구했던 완전한 순종 곧 흠이 없는 의, 주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 결점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 생애에 실천케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서는 곧 오신다. 그대들의 생각을 높이고 머리를 쳐들 것이며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즐거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한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란다.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반복되어야 하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다. 이보다 더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신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과 트집잡는 일이나 언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일이 아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의 대속물이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저희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값싼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열렬하게 살아서 거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비취는 밝은 광명 속으로 이끌리게 되기를 바란다. 간신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구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거나 우리 이름을 교회 녹명책에 기입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유 및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은 자신을 둘러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산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이다. 그는 까다롭게 따지는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관리하는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서 그의 열정이 식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같이 사업의 각 분야를 든든하게 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정신이나 이기적인 관심은 없을 것이다. 사업은 하나이며 진리는 거대한 전체를 이룬다.


간절하고도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시기심을 품고 있지 않은가? 혹은 질투심이 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볼 것이다. 만약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라고 물어볼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의 복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가 되려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투쟁은 없을 것이며 저희 이웃을 저희 자신들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신자들 각자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저희 심령을 각성시켜 호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시온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은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남녀들은 깨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평범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무아의 관심을 가진 자들, 곧 악이 편만하다고 하여 역경 가운데서도 시들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여 식어지지도 않는 열렬한 정열을 지닌 그러한 자들이 요구된다.

나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리 신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그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여 멸망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있다. 좋은 때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업에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선정적이며 취미삼아 믿는 종교는 이 시대에는 필요치 않다. 신앙 생애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강렬한 열정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한 세력과 합세하기 위하여 사단의 세력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화시키는 감화력을 가진 진리를 백성들에게 역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가정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영원한 실재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간절한 탄원과

고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혹은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 품성의 도덕적인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과연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백성들이 저희 재물과 시간

과 낭종과 저희 모든 감화력을 이 때를 위한 사업에 경주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다 같이 분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382.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사 49:16)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니엘 리 - 미국

진정한 회개의 본질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질문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이다. 둘째, 안식일을 포함하여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결과이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연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대한 계시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끈다(롬 2:4). 이 교제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영혼이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알게 되고, 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회개가 더 깊고 강렬해진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사도행적, 561.

에녹에 대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고 한다. -부조와 선지자, 85.

회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의 다른 변덕처럼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이 인간의 마음의 화음을 두드려서 강력한 확신의 힘으로 그것을 녹이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스러움을 끊임없이 마음에 각인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반응이다. 믿는 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교제의 친구로서 그분께 마음을 열 때, 모든 자기의의와 상상의 선함이 벗겨지고 영혼의 벌거벗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통회하며 겸손하고 회개하며 엎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汚點)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찢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

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29.

이사야의 회개 -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델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도덕적 약함과 성격의 불완전함에 충격을 받고 압도당했다. 선지자의 절망적인 외침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사 6:5)였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삶을 바꾸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사 3:11).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 것이다”(사 5:20~22).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변에 만연한 불의를 정죄하게 되었지만, 영적 여정의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반드시 깨닫지는 못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마주치기 전까지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정신과 마음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잊을 수 없는 그 만남의 결과로, “너 회개에 화가 있을 것이다”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로 바뀌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꼭 같은 정죄아래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

혜와 재능들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주석[화잇주석] 4권, 1139.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의 예언자 이사야처럼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에 대해 눈멀어 있다. 신성한 진리의 보관자로서의 그의 높은 지위와 흠 없는 태도는 불행히도 그가 실제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내린 평가는 충실하고 참된 증인의 평가와 크게 다르다. 그분은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계 3:17)고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재물이 풍부하여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노라”(계 3:17)고 외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승리 주의적이고 자화 자찬적인 태도에 빠져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의 크기에 속아 있는 한, 성령은 죄를 확신시킬 수 없다. 이 해로운 마음 상태를 단호히 버리고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가슴 아픈 회개와 죄의 고백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만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스러워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고 외치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그들에게 불쾌했다. 아브라함과의 친화성과 수많은 행위 중심의 개혁, 엄격한 형식주의로 인해 높아진 영적 우월감에 눈이 멀어, 그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느꼈고,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었고, 회개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이러한 자기 기만적인 종교 신봉자들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회개 칠한 무덤”(마 23:27)이라고 묘사하셨다. 이들은 규칙과 규정에 대한 외부적 순응을 마음속

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의로움과 혼동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만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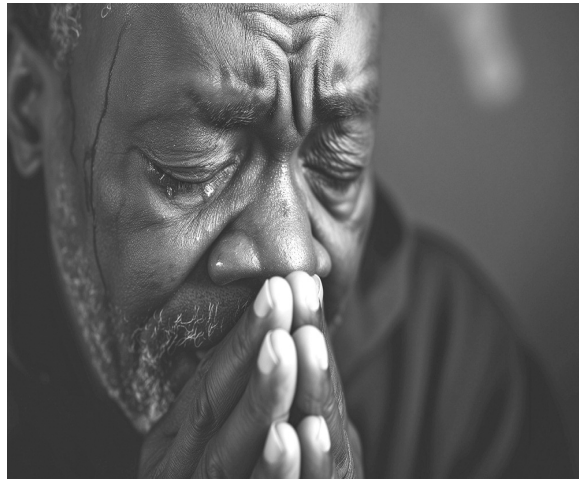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에서 발견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계 3:19)는 현재로서는 인기가 없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르심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이 부르심은 현재의 의무이다.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단호하게 토해내어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험했던 것과 같은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자기 행복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롬 2:4).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었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에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서 겸비히 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언약의 무지개는 보좌 위에 있다. 이사야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들 속에서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성경주석 [화이트주석] 4권, 1139.

속죄일의 회개가 예표됨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예표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그분과 교제하고 성소에서 그분이 마무리하시는 일을 묵상할 때, 그들은 기억과 기록의 책에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지워 버리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현저히 대조되는 그들의 마음의 불순함과 그들의 품성의 변형의 정도를 더욱 분명히 분별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회개는 엄청나게 깊어질 것이다. 그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마음의 순수함을 간절히 간구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의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성공할 것이다. 연구와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속적인 것, 세속적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그분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것이며, 지상의 경배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품성을 의의의 큰 표준과 비교해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결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75.

드러나고 회개해야 할 인간의 죄의 전적인

범위

회개하는 신자는 자신의 삶의 죄악의 정도를 전혀 모른다. 그는 자신의 범죄와 죄의 엄청난 죄책감을 마음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날이든 그의 회개는 결코 충분히 깊지 않다. 그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매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훨씬 더 빗을 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소의 기록책에는 일반적으로 매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들어 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진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 482.

아직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죄조차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고 심판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증거한다.

“하나님의 법은 감정과 동기,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까지 미친다. 그것은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 묻히기 전에는 사물에 빛을 비춘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모든 계획, 모든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질러졌을 죄를 기록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영문시조, 1901.7.31.

이상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죄악이 더 많이 드러나고 밝혀질수록 회개의 사역이 더 깊어질 것이다. 불행히도,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이해는 회심 시 삶에 도입된 건설적인 개혁의 결과로 심하게 왜곡되고 심지어 흐릿해질 수 있다. 식단, 복장, 성향 및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입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점점 더 의롭게 되었고 따라서 점점 덜 죄스러워졌다고 (잘못 생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최상의 자기기만이다. 이것은 바로 “나는 재물이 붙어났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의 교착 상태의 본질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

닫는 것보다 이 함정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 사실, 그것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이지만, 분별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외치신 이유를 설명한다. 모든 것을 말해 보면, 이런 태도는 비참한 것이며 회개의 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후의 속죄와 정화에 앞서 깊은 회개의 사역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에 지성소에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맥락에서 그분의 아들과 긴밀하게 연결될 사람들을 두실 것이다. 이들은 절망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삶의 죄악의 정도를 온전히 파악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매력과 대조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날 교회에서 널리 퍼진 라오디게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깊은 영혼 탐구와 깊은 회개를 특징으로 하는 영적 정화를 거칠 것이다. 이 경험은 이사야가 겪은 것과 비슷할 것이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지속될 것이다. “영혼을 괴롭히는 것”(레 16:29; 23:27~32)이라고 불리는 이 경험은 남은 교회가 최후의 속죄와 정화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생활의 악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급기야 절망에 빠지려 한다.” -선지자와 왕, 588.


이때 깊은 자기성찰과 회개의 일이 요구된다 (을 2:13). 교회에서 차갑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의례와 의식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없는 이론적인 설교를 관습적으로 설교하거나, 교회와 집에서 빈약하고 기계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경험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매일, 매시간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

과 동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적인 종교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형적인 속죄의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평소와 같은 일이 없다. 영혼의 고통은 남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군 명령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속죄를 하려고 한다. 그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눅 3:1~5)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곧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것과 일치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다. 자신의 영적 타락을 애통해하고 영혼의 빈곤을 애통해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했던 자들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마지막 속죄의 혜택을 받고 144,000명에 속하는 축복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겠는가? 그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인가? 그대는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죄

없는 천사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할 것인가?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합당하다고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그분 앞에서 저희 마음을 씻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눅 3:4)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남아 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咆哮)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선지자와 왕, 591.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회심

엘리아스 리베라 - 미국

탈바꿈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우리 마음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삽화를 가지고 있다. 나비의 주기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짧아서 약 한 달이 걸린다. 나비는 애벌레가 먹을 식물의 잎 아랫부분에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하면 작은 애벌레가 껍질에서 나온다. 반면에 애벌레는 매우 탐식적이어서 많이 먹고 빨리 자란다. 애벌레가 성숙하면 번데기를 형성하는데, 이를 번데기라고도 한다. 번데기 안에 들어가면 애벌레는 탈바꿈이라고 알려진 변형을 거치고 며칠 후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다.

애벌레는 완전히 변형된다. 그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 되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본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변형시키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 영을 너희 속

에 두고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을 지켜 행하라”(겔 36:26, 27)고 선언하신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변형, 다르게 만들기, 완전히 원래의 것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는 요 16:20,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요” 또는 계 11:6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니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 인간이 용서받고 변화되는 역사, 믿는 자를 정당화하고 거룩하게 하는 숭고한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이다.

회심이 작용하는 방법

회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인간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울의 회심과 같은 급진적인 회심이 있는데, 이 회심은 다소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매우 두드러졌다. 사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시되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만남은 그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고,

그는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행 9:6)라고 외쳤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는 3일간 금식과 기도를 한 후 침례를 받고서야 시력을 회복했다. 그런 다음 그는 며칠 전에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즉시 일하기 시작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삶과 기별의 중심이 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했다. “곧 그는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행 9:20).

바울(바울은 “작은 자”를 의미함)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의 역사였다. 이로 인해 맹렬한 박해자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았고 두려움 없이 그분의 기별을 전파했으며 온갖 어려움, 심지어 죽음 자체에도 직면했다. 니고데모의 경우와 같이 다른 유형의 회심도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는 예수님과 의 면담(요한복음 3장 참조) 이후 3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졌음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지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2.

저항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 십자가에서 비취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새명을 지어 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 40:8)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시대의 소망, 175, 176.

성령에 의한 회심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최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2, 173.

진정한 회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행 3:19, 킹제임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심이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속고 있으며, 너무나 자주 그들의 모든 경험이 속임수로 판명된다. 이것이 교회에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예언의 선물 4권, 298.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 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겔 18:30)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23.

그러나 이런 종류의 회개를 경험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에 이끌린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수적인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가져올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회개로 이끌 수 없다. 회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서 태어난다. 가장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1.9.3.

회심의 열매

회심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가져온다. 새 삶, 깨끗하고 새로워진 마음, 올바른 영과 다른 열매들은 회심의 영광스러운 증거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회심한 후 음란한 삶을 포기하고 성 안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했다. 요 4:28, 29.

- 풀려났을 때 벌거벗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회심

한 후 그의 벌거벗음은 사라졌다. 눅 8:35.

-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회심한 후 복음의 충실한 목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빛의 왕국의 전령이 되었다. 마 4:19.

- 세리 삭개오는 회심한 후 반역자이자 백성의 원수로 고발 받았지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심했다. 눅 19:8, 9.

- 음탕한 생활로 인해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마리아는 구원받고 회심한 후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귀중한 선물을 가져왔다. 막 14:3.

회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우리 삶에서 꽃피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선교 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충실함, 거룩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로 회심한 사람의 삶에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풍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70.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시대의 소망, 195.

거짓된 회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유행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두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옛 사람에게서 먹이를 받아 살아간다.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이 회심했다고 믿도록 스스로 속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 12)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거짓된 회심의 이유는 지식이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고 그분의 은혜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삶 속에서 작용하도록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인데, 그의 악명은 잘 알려져 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717.

그대가 모든 죄악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분리할 의향이 있을 때, 그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의 길과 평화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 주간에 들어섰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불의의 길이 있는지, 우리의 애정이 분열되어 있는지,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는 우상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는 유일한 왕이신 경험을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사 33:22참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애 5:21)

때가 왔음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영원히 묻을 때가 되었다(창 35:2~4).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이다(벧전 1:2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자유로울 때이다. 분열된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분의 마음에 맞는 남녀, 청년으로 변화될 때이다(행 13:22). 예수님께 “예”라고 말할 때이다. 오늘 예수님께 행복한다면, 그분은 그대의 삶에서 빠진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확고하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19, 20)

참으로, 표면적이 아닌 회심

회심은 진심이어야지 표면적이어서는 안 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믿음의 핵심은 의례나 의식을 넘어서야 한다. 구주의 시대에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크게 과시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삶이 공허하고 부도덕하다고 선언하셨다. 마 23:27, 28. 외적인 변화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도 자리가 있지만, “영적인 마음”, 즉 정신은 새롭게 되어야 하며, 그러면 새로운 삶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 대신 희생과 의식에 의지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이,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현존을 인간이 만든 수많은 요구 사항으로 대체했다. 심지어 그들의 거룩함을 수많은 의식으로 측정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교만함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나 개선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이다. 북극 여우의 털은 갈색이지만, 겨울에는 눈처럼 희어진다. 그러면 여우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변한 것은 털뿐이며, 이 변화는 겨울철에 위장을 해줄 것이다. 비록 그의 외적인 모습이 일시적으로 변하더라도, 그의 본성은 변함이 없으며, 그는 여전히 대담하고, 추격하며, 살인적인 여우이다.

“마음의 넷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대의 소망, 172.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매일이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옛 죄 많은 본성, 즉 “옛 사람”이 완전히 소멸된다. 옛 사람이 침례의 물속에 묻혀 있는 동안, 그 가련한 사람은 우연히 수영을 잘한다는 관찰이 있었다. 따라서 바울의 확고한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이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품성의 특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매일 다시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죄의 찌꺼기로부터 정결케 되어 봉사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307.

“바울의 거룩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같등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 매일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같등했다. 하지만 그는 성향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의 본성이 아무리 불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의 표적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든 자아를 비우고 은혜의 황금 기름을 공급받는 것을 보여야 한다.” -청년 지도자, 1899.8.24.

비밀이 밝혀짐

바벨론의 다니엘은 흠 없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단 6:4).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 준다. 그는 두 번이나 다니엘의 비밀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삶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유지했으며,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겼다. 영감 받은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

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왕은 그를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굴에서 끌어올려졌고,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단 6:20, 23).

“참된 회개는 우리를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한다. 우리 앞에는 직면해야 할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강한 물결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어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의 무관심하고 죄된 상태로 되돌리고자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27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개인적 회개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 즉 개인적 회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경험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각자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 영원부터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순종하는 자녀로 택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기록해지고, 자아의 모든 하찮음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자기 행복을 요구하신다.” -청년 지도자, 1899.8.24.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 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 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24, 25.

결론

에녹은 아들 므두셀라가 태어난 지 300년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300년 이상 매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본질적으로 “에녹아, 네가 이 300년 동안 나와 동행하자고 청했으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걸으라고 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에녹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욘 2:12)

오늘 충분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라.

•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바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 이미 예수님께 자신을 바친 그대는 그리스도와 같이 더욱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께 다시 바치기를 원하는가?

• 지금 바로 기도하여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겠는가?

함께 기도하자. 

12월 11일 수요일



제드로 M.시틀러 - 남아프리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도말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하거나, 존재나 기억에서 지우거나 지워버림을 의미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확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 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 아래 용서를 받았다는 글이 기록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자임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마라나타, 93.

이제 죄를 도말함이 필요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겠다.

불순종과 죄의 얼룩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후,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담에게 두루마기처럼 입히셨던 영광의 빛으로 된 옷은 그가 범죄한 후로 벗겨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불순종과 죄를 덮어 줄 수 없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분깃은 건강과 풍성한 축복 대신에 곤궁함과 질병과 오갈 형태의 고통뿐이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70.

비극적으로, 사람은 죄의 얼룩과 교환하여 큰 특권을 잃었다.

“사단은 인간의 타락을 이루었고, 그 이후로 그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인간의 마음에 자신의 형상을 각인하는 일을 해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61.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888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불순종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확실했다.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자마자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라는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창조 이래로 죽임을 당하셨다”(계 13:8)는 놀라운 계시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에 의해 행동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적대감을 약속하셨다(창 3:15 참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

“[이 약속은] 인간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하는 한편, 위대한 적의 권세가 마침내 깨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 믿음으로 살리라, 75.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 부조와 선지자, 63.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 나타났다. 주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과 기념물

속죄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후, 떠난 빛의 옷과 무화과 잎 앞치마를 가죽으로 된 옷으로 대체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상징했다. 이러한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는 말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에 세운 제단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모리아 산에 지은 성전,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 행해진 동물의 피 희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효능을 선포하는 상징과 기념물이 분명하게 나타났다(창 22:2; 대하 3:1).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 복음전도, 221.

성소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소’라는 용어는 첫째,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로 지은 장막을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이다.” - 믿음으로 살리라, 202.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위한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말이다(출 25:8).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8)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다.” - 부조와 선지자, 343.

지상 성소 또는 장막은 뜰, 거룩한 곳,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죄를 씻어 내기까지 예언된 일을 상징했다.

1. **뜰**(출 27:9~18)은 장막을 둘러싼 지역이며 모든 제물이 희생된 곳으로, 위대한 원형적 제물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운명에 처한 땅의 모형이다(요 12:32, 33)(십자가와 그림자, 176, 178). 죄인이 속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뜰의 유일한 입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유일한 접근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켜준다(요 10:7, 9). 희생 제물의 피를 붓고 번제의 재를 놓는 번제단(출 27:1~8)은(레 6:10; 신 12:27) 이 땅에서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불로 정결케 하는 길을 닦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부어지는 것을 예표했다(말 4:1, 3)(십자가와 그림자, 129, 130).

희생의 피는 또한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히 10:19, 20). 뜰 입구와 장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출 30:17~21)은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영적 정화에 대한 진리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침례도 그 상징이다(요 3:5)(십자가와 그림자, 179).

2.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다(히 9:1, 2).

A. **성소**에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 가구가 있었다. 진설병(출 25:23~30)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요 6:48, 33, 51)(십자

가와 그림자, 56). 촛대(출 25:31~40)는 말씀의 등불을 지탱할 교회(계 1:12, 20)를 상징한다(시 119:105). 각 등불 안의 기름은 지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속 4:1~6, 10 참조, 계 5:6). 향단(출 30:1~7)은 우리의 기도와 섞인 예수님의 끊임없는 향기로운 중보를 상징한다(히 7:25; 계 8:3, 4).

B. 지성소(히 9:3~5)에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 가구와 품목이 있었다. 언약궤(출 25:10~22)는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상징한다(교회증언 4 권, 157). 궤 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있었다(신 10:4, 5). 이것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표현한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그리스도를 나타내라, 46). 깨진 율법을 덮고 있는 시은소(출 25:17~21)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임재가 나타난 곳이었다(출 25:32; 30:6). 이것은 구원의 계획에서 자비와 정의의 결합을 나타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데 적합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과 진실이 풍부하시다”(출 34:5~7)라고 선포하셨다(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69).

만나 향아리(히 9:4)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빵을 비처럼 내려 생명을 유지하셨을 때의 섭리적 보살핌을 상기시켜 주었다.(출 16:32, 33).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식량 문제에 대한 귀중한 빛줄기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 주셨고, 그것은 그것을 모으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음식, 269). 우리가 이 빛을 나눌 때 복음 전파를 위한 문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손이 되어야 한다(건강에 관한 권면, 219). 아론의 짝 난 지팡이(히 9:4)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질서와 지도력의 체계를 존중하라는 상기였다(부조와 선지자, 397, 403).

지상 성소와 그 상징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희생 제도, 구원의 완전하고 완전한 계획,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정하셨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상 성소의 희생 의식을 지워버렸고, 따라서 오늘날

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골 2:14, 히 9:8~14).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지상 제사장 직분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여 지상 장막의 제사장 직분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민 1:50; 출 28:1; 레 21:17~23).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히 7:14).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히 5:1). 예수님께서서 하늘에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히 2:16).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 달리, 벨기세택의 반차에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히 7:3).

두 가지 사건이 지상의 제사장 직분에서 천상의 제사장 직분으로의 전환을 나타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 초기문집, 259, 260.

“그[가야바]의 의복을 찢으므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할 것이다.” - 시대의 소망, 709.

매일의 제사

매일의 제사 의식은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예고하기 위해 뜰과 성소에서 거행되었다. 죄인은 흠 없는 어린 동물(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했다. 어린 양(출 12:21)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상징했다(요 1:29; 고전 5:7). 죄인은 동물을 직접 죽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은 피를 취하여 제단 뿔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붓거나 성소의 향단 위 휘장 앞에 뿌리거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의 일

부를 먹었다. 전체 예배는 죄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했다(히 9:6; 레 4:3, 7, 22, 23; 6:10; 10:17, 18).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러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예배자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부조와 선지자, 35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레 16:17)라고 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355.

속죄일

속죄일(욘 키푸르)은 티스리 7월 10일(9월과 10월 사이)이며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로 남아 있다(레 23:27).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355.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였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로서 수행한 봉사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356.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

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1.

조사 심판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1, 422.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벰전 4:17)할 것인가.” -각 시대의 대쟁투, 480.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6.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

생명 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눅 10:20, 빌 4:3; 단 12:1; 계 21:27.]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말 3:16) 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 모든 의로운 행위는 불멸화 된다. ...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 모든 악한 행위, 모든 쓸데없는 말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전 12:14; 마 12:36, 37; 고전 4:5; 사 65:6, 7).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 또한 그 범행자 외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6.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 482.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量)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6, 487.

우리의 증보자이신 지성소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아버지 앞에서 증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또한 히브리서 9:24를 참조하라.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

름들은 가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사 43:25; 계 3:5; 마 10:32, 33.]” -각 시대의 대쟁투, 483.

우리의 엄숙한 책임

조사 심판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원에 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히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0.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빌 2:12).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 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 12)” -각 시대의 대쟁투, 490, 491.

결론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발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막 13:35, 36)).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

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단 5:27)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1.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를 멸망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죄의 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 주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지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아멘. 🙏

새롭게 하는 때

A.C.사스 - 호주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준다.(전 3:1).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는 것”에도 성취되어야 할 때가 있다.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곡물의 마지막 수확 전에 땅에 내리는 비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또한 “늦은 비”로 알려져 있다.

“동방에서 이른비는 과중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하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6.

구약성경의 선지자 스가라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적절한 때에 기도하고 부어주실 것을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봄비(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슥 10:1)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무리에게 설교할 때 “새롭게 함”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그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풍부하게 부여졌다.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은 “이른 비” 또는 “이전 비”라고 불렸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사도 베드로가 “새롭게 하는 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 기도주일 낭독문에 요약된 대로, 사건이 성취되기 전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성경 구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행 3:19, 20, 킹제임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

- a) 회개
- b) 회심
- c) 죄의 도말
- d) 유쾌하게 되는 때

e) 예수님의 재림

회개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이끌 것이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실례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정로의 계단, 41.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8, 9)라고 썼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해진다.

회심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회심하도록 초대받는다. 회심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께로 돌아서기를 권하신다. 강요가 아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을 2:12, 13)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57.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약간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이다.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죄인이 불모잡은 것을 도로 주고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고 스스로 확신할수 있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59.

죄의 도말

이 기도 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고백하고 버린 죄만이 지워지거나 생명책에서 도말될 수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함”, 즉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행 3:19)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조사심판에서) 너희 죄의 도말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함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행 3:20)라.” -각 시대의 대쟁투, 611, 612.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리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느니라”(행 1:14)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러 있었다.” -사도행적, 37.

이것은 사도행전 2:1~4에서 성취되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 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

사도행적, 49.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성령이 주어져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욘 2:28, 29)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가장 큰 분량으로 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요엘 2장의 이전 구절에서 선지자는 늦은 비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한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욘 2:16~18)

그의 죄가 도말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아무도 “유쾌함”이나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심 없이 최악된 상태에서 그 위대한 축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늦은 비의 때에 개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절망적이다. 다음 진술에서 읽을 수 있듯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 줄 ‘늦은비’와 ‘새롭게 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초기 문집, 71.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은 환란의 때에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0.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영이 영혼과 성격에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오, 사소한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도말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를 것이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319.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2.3.22.

늦은 비가 부어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4.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마지막 갈등의 기간인 ‘야곱의 환란의 때’에 접근함에 따라,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서 그분의 영에 크게 참여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

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수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62.5.27.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을 2:23)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에 내 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행 2:17, 18).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초기문집, 33.

“여기서 언급된 ‘환난의 때가 시작 된다’는 것은 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짧은 기간을 말한다.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 때에 땅 위에는 대환난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 때에 늦은비, 혹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문집, 85~86.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르는 ‘늦은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

집단적 경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른 비의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한 곳에 모두 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도 비슷할 것이다. 스가라서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소나기를 주시고”(속 10:1, 킹제임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었고, “늦은비 때에 주님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에 강한 강조점을 두었고, 주님께서 “들판의 모든 풀”에게 소나기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잊었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때 정화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들판(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늦은비를 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늦은비의 축복을 위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영감의 말씀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다” -교회증언 1권, 99.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초기문집, 271.

예수님의 오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같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

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1~13)

“구주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찾으시고자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마라나타, 112.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0,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1-34)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교 경륜의 초기에 초기 제자들이 이른비를 받았을 때의 경험에 대해 읽을 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집단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다른 신자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았다.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가? 늦은비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언급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자주 기도해 왔다. 언제 성취되는가? 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늦추는 것이 주님의 잘못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몇 주 후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2025년 총회에서 대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겠는가? 그때 늦은 비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위대한 축복을 위해 준비하자. 주님

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 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 올랐으며! 준비하라! 준비하라!” -교회증언 2권, 401.

나는 여러분의 동료 중 중 한 사람으로서 2025년 총회에 대표자로 갈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빈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총회에 가서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흠 없는 양심을 갖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라.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총회의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큰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동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골 2:23).” -시대의 소망, 827.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비우고, 시기, 질투, 악한 추측, 다툼,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과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205.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르셀로 폰세 - 독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는 구속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죽음의 영역과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의 나타나심이 ‘쫓겨난 자들을 다시 데려오실’ 약속에 소중하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이 주어졌다. 재림의 교리는 성경의 핵심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9.

나는 11살 때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오신다는 놀라운 기별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언에 나타난 위대한 사건들은 예언에 예언된 대로 정확히 그리고 예언된 시간에 성취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사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분의 약속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상 사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지금 당장은 그분과 함께 갈 수 없

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슬픔과 버림받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1). 그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삶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영혼이 평화를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그 저택들은 집을 상징하며, 집은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안전, 평화, 행복을 찾는 곳이다. 그 약속은 우리 각자에게 큰 영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사 65:25) 집에 도달할 것이다. 그 집은 오늘날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을 안겨주는 모든 것과는 거리가 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계 21:4)는 곳이다.

하지만 다음 약속은 이전 약속만큼이나 컸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내가 다시 오리라”는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 약속이 그들의 주의와 동기의 중심이 되어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고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사십 일 후에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의 감람산으로 인도하셨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배척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도시 앞이었다. 그것은 작별의 순간이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무리의 남녀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릴 기회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가장 깊은 애정과 동정의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시대의 소망, 830, 831.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으로 사람의 모습을 한 두 명의 강력한 천사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이것은 예수께서 오래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희망의 기별과 같았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 25:31). 이것은 요한이 밤도 섬에서 받은 계시와 같았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천사들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

는 것을 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참으로 그분은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며,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징조

제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종말의 때에 대한 더 많은 이해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와서 물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기술이 더 발달하고 현대적인 교통수단으로 여행하는 곳에서는 위성 내비게이터나 GPS 장치의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나 선택한 경로의 가능한 변경 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도로 근처의 표지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성경의 예언은 마치 GPS와 같아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준비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기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마 24:4, 5).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것을 종말 전의 첫 번째 표징으로 제시하셨을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도 성경 예언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의 공포의 통치를 끝낼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교활하고 간교한 책략으로 - 마치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기 전에 관찰하는 것처럼 - 거짓 교리를 진리의 일부와 섞어서 신자들이 그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이슬람, 불교, 불가지론 및 기타 철학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고, 유일한 참 지식의 근원인 성경에서 멀어졌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를 오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자주 연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확연하게 하는 유일한 보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고가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신자들이 기존의 종이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자 기기에 완전한 도서관, 수업, 찬송가 등을 항상 휴대하기가 더 쉬워졌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의 조그만 신호나 잠깐의 주의 산만함에도 우리는 공부를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은 종종 그 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로 재빨리 바뀐다. 사단은 매우 쉽게,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신자들을 진리에 대한 공부에서 떼어 놓았다.

전쟁, 역병, 기근, 지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 24:6, 7).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국가들이 사는 격변을 목격했다. 모두가 현재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을 죽인 주요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정치적 불안

정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수천 명의 난민이 다른 방향으로 이주하면서 고통과 굶주림이 만연한 진정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백만장자 예산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사는데 할당된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즉석 식품이나 불량 식품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매일 수천 톤의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지만, 수천 명이 굶어 죽는 곳도 있다. 21세기에는 모든 기술이 발전하고 물건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속도가 가능해졌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실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허약해져서 죽는 곳이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자연 재해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 중 하나이다. 가뭄으로 지구 일부 지역에서 생명이 멸종하고,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비나 토네이도,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 파괴와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곳에서 격렬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위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 시키는 매개물들이다.” - 선지자와 왕, 277.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큰 날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고 예방할 방법을 찾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모든 것이 기후 변화의 산물이며 이것이 자연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시 한 번, 인간의 이론은 사람들의 귀를 이러한 사건의 진정한 이유에서 돌린다. 자연이 고통받고 인간의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구를 파괴한 사람들이 겪을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계 11:18). 위대한 창조의 사역이 박멸되고 있으며, 그 사역을 악화시킨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징조와 시간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제자들이 물었듯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우리는 날짜를 정할 수 없고, 징조를 해석하고 우리 세상과 그 주민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역사는 반복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가 홍수전과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만든 것은 인간이 그것들을 극단적으로 행한 것이다. 오늘날 가장 흔한 질병은 주로 나쁜 식습관이나 음주 습관,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과 남용에 기인한다. 대도시에서 흡입하는 것과 같은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

거나 담배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질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퇴행성 또는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싯딤에서 겪은 경험은 감각과 통제되지 않는 정욕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럽고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경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욕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잔해(殘骸)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울무를 놓는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는 3천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환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일곱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부조와 선지자, 457, 458.

그분의 재림을 재촉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벧후 3:12).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실물교훈, 69.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또한 침례 요한이 주님의 첫 번째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한 것과 같은 개혁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개혁의 대주제가 뒤흔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휘저어야 한다. 범사에 절제는 기

별과 관련을 맺어야 하며, 의복과 다른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와 탐욕과 사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야 한다.” -교회증언 3권, 62.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하늘 저택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문을 단호하게 닫아야 한다. 우리의 행위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빌 3:20)는 것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준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큰 날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날마다 끝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에서 하루가 줄어든다.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우리 모두가 철저한 회개를 거치고 우리 삶에서 깊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라”(벧전 1:1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고전 2:9)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매력, 그 축제와 전통, 불필요한 유행이나 장식,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음료, 돈과 세상 소유물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중한 기별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이 준비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회개와 회심으로의 부르심에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 우리의 매일 기도가 “주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가 되기를 바란다. 축복받은 소망이 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순례를 비추는 횃불과 같기를 바란다. 우리의 목적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최고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빌 3:14) 매일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약 1:27)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그분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실물교훈, 69.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계 22:20). 아멘. 🙏

영광의 왕국

로물로 보르헤스 - 브라질

이 기도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마치 비밀과 발견으로 가득 찬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 한 계시에서 다른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은 나침반 역할을 했다. 행 3:19, 20의 본문을 바탕으로 회개, 회심, 죄의 도말, 새롭게 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탐구했다. 이제 이 마지막 모임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탐구할 것이다.

이 왕국은 지상의 경계나 인간의 시간에 의해 제한된 평범한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만큼 광대하고 인상적인 영원한 현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정의에 닿을 내렸다. 시간과 폭풍우의 시험을 견뎌내는 등대처럼, 이 왕국은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4)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왕국의 영원한 약속을 함께 탐구해 보시기를 권한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두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다:

- (1) 은혜의 왕국
- (2) 영광의 왕국.

영광은 은혜의 선행적 나타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갈릴리를 여행하실 때에 도시와 촌락에서 군중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시대의 소망, 232.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왕국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 인류는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8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님은 또한 재림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장래에 임할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분의 다양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 25:31~34에서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대의 소망, 234.

마태복음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영광의 왕국을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세계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은 미래에 있지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현실이다.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이러한 귀중한 계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국에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영광은 신민들이 영광의 왕국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영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접촉으로,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해방시키고 불멸로 만든다. 고전 15:51, 52에서 선언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 52)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현재 몸은 필멸적이고, 타락했으며,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믿는 자는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죽음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이 새로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죄에서 자유롭고 불멸하며 영생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변형되어 변형될 준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구속받은 개인, 부활한 성도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신실한 자들에게 변형의 신성한 접촉을 하실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은 이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 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5.

모두가 온전해질 것이다! 이 변형은 인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 개인의 개인적 정체성은 보존되어 구속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은 부활후에도 보존된다. … 죄의 저주의 마지막 잔재는 제거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실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이며,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그들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 믿음으로 살리라, 185.

영광의 왕국의 특징

우리가 영광의 왕국을 언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 새 땅, 새 하늘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언어적 자원은 하나님의 낙원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데 부족하다. 대쟁투 675페이지는 이 점을 강조한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달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인간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를 거룩한 낙원으로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요한 계시록의 계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하늘 영광을 엿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의 강조점은 계시록 21:1~5에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 21:1~5)

요한의 예언적 환상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광의 왕국의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새롭게 된 땅과 하늘의 예루살렘

“새 땅”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창조를 나타낸다. 죄가 그토록 깊이 영향을 미친 지구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에 타버릴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말 4:1~3)

죄의 선동자(사단)가 파멸되고 지구가 정화되면서 에덴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창조물은 창조주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새 땅의 수도가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보석처럼, 벽옥처럼, 수정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계 21:10, 11 참조).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하신 자들, 곧 지금은 그분의 영원한 자녀들 가운데 거하기로 택하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그분의 소중한 임재와 빛을 즐길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신 분인 그리스도

께서 그들 곁에 서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여 경배할 특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와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친밀하고 사랑에 찬 관계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고전 13:12)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6, 677.

더 이상 슬픔이나 눈물이 없음

밋모의 선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새 땅에서 영광의 왕국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다. 슬픔과 울음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도다”(사 35:10)

더 이상 병이 없을 것임

새로운 땅에서는 더 이상 병이 없을 것이다. 병원, 의사 또는 치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죄의 모든 결과가 제거되고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

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24)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 35:5, 6)

더 이상 죽음이나 장례 행렬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삶에서 죽음은 많은 행복한 이야기를 끝낸다. 새로운 땅에서는 죽음, 장례 행렬 또는 무덤이 없을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사 25:8)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자들은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전 15:54)고 선포할 것이다.

영광의 왕국에서의 성장

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의 경이로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점점 더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숨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 678.

죄의 귀환은 결코 영광의 왕국에서의 성장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유혹하는 자나 악의 위협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유혹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사단의 반역을 목격했고 그 결과를 보았다. 신성한 정의가 확립되었고,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 전체가 이렇게 선포할 것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실제로 선과 악 사이의 투쟁에 대한 기억만이

있을 것이다. 지상의 고통, 아픔, 유혹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들의 구원에 드는 대가를 분명하고 지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몸이 구원의 표식을 지니고 계실 것이다. 끝없는 영원의 세월 동안, 이 표식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증거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1, 652.

결론

영광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탐구한 후, 심오한 질문이 생긴다. 누가 이 왕국의 즐거움을 누릴 특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신성한 계시의 빛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다. 은혜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육신, 악한 자의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이들은 구세주이자 그들의 삶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다. 그들은 구원의 때에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다. 곧, 아주 곧, 우리는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영

원한 기쁨을 누릴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분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 줄 품

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36,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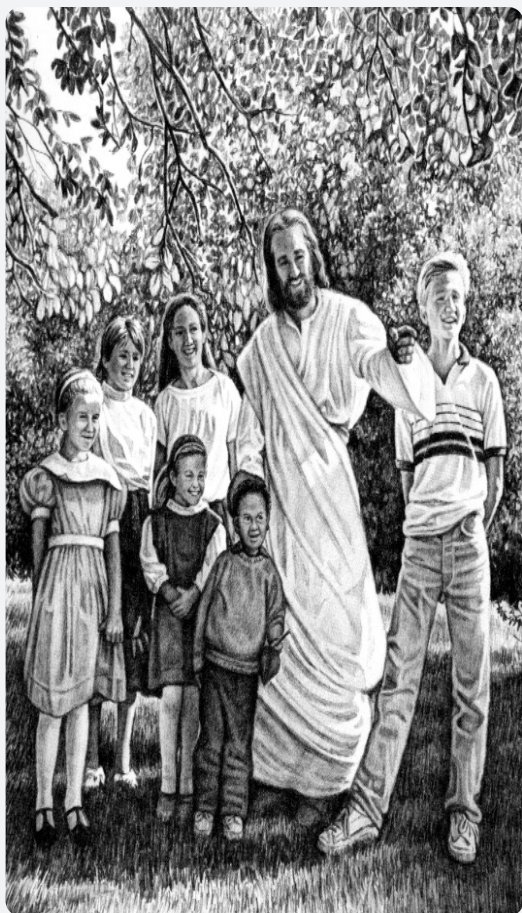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복자로서 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구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 낙원에서 영광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

10월 1일(화)

2024년 기도력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엘렌 G. 화잇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하고 풍성하고 기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다. 생명은 빛과 함께 하며 만일 우리가 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빛은 각 영혼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그 빛에서 돌아서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임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태양 빛을 가리우면 모든 채소, 모든 동물의 생명은 멸절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태양아래 두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방에 꽃이 피는 식물을 놓아두면 곧 시들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어도 의심하고 침울한 분위기에 거함으로 영적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

우리는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로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노력하는 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자. -청년 지도자, 1893.5.25.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서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작열한다. -산상보훈, 64.

10월 2일(수)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9, 10)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는 영적 생명을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그리하여 선에 대한 그의 능력을 촉진하며 그의 도덕적 부정(不淨)을 씻어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성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큰 축복과 풍부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훌륭한 상담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끌 지으시도록 굴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골 2:9, 10)다.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복종시키기까지는 인간은 결단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성령은 회개한 영혼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랑하는 마음은 겸손으로 변한다. 그 마음은 진리의 미(美)를 인식하고, 그리고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에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903. 2. 10.

여호와 임마누엘, 곧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여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골로새서 2:3, 9절)는 분의 특성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더욱 넓게 열 때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에베소서 3:18, 19절) 하심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종들의 기쁨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이사야 54:17) -산상보훈, 57.

10월 3일(목)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그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죄로부터 그대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대들을 이렇게 고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라. ... 작은 일이라도 열심을 품고 일하라. 그대들이 옳은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하라. ... 그대들이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하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대들의 구주이시며 그대들이 가라지가 아닌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도록 날마다 그대들을 도와주실 구주를 의지하라. ...

그대들은 그대들의 눈은 물론 그대들의 머리로 알도록 배워야 한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식별력을 키워야 한다. 안내하면서 그대들의 길을 주께 맡기라. 모든 어리석음과 죄에 대하여 그대들의 심령을 단아야 하며 모든 하늘의 감화력에 대하여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균형잡힌 품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시간과 기회의 대부분을 선용하라. ...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그대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대가 어떤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곧 영원한 사물들이 세상의 일시적인 사물보다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영원한 사물의 가치와 신성함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행복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대의 예리한 사고력과 정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른 사물은 여기에 비교하면 모두 무가치하다.

그대에게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러면 그대가 어떤 위치에 부르심을 받든지 적합하게 될 것이다. ... 그대는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청년 지도자, 1894.5.17.

진리 안에서 행함

계명을 조목조목 지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요삼 3)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바로 최선의 재능을 위한 한 장소가 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의무에 충실하고 그의 하나님께 충성을 한 것처럼 충실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생애의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신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한다. 이를 행하므로 우리는 완전한 극기를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이고 쉬지 않는 경계를 요구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인간 대리자들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재치있고 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요청하신다. 예민하고 성화된 분별력이 필요하고 사단의 교묘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명민한 사업이 요구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부합되고 보다 거룩하고 더욱 확고하며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초청이 주어졌다. 심령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속에 심겨져야 한다. 지금 신앙이라고 일컫는 많은 것들이 사단의 군대에 의한 공격을 받을 때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진리 곧 위로부터 난, 영혼을 거룩케 하는 진리 외에는 아무 것도 서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통제하고 가정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심각한 잘못을 피해야 한다. 많은 가족들 가운데는 신뢰할 수 없고 부주의하고 거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단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된다. 이런 걱정적인 말들에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은 안내 서적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요구를 알고자 결심하고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에 행위와 대화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생애의 모든 관계와 책임 있는 모든 위치와 모든 애정과 습관, 모든 마음의 동기는 의의 큰 표준인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을 이해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 ...

아무도 자기 방종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청년들로 그들의 욕망을 제어하기를 배우게 하며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청년 지도자, 1894.5.24.

온 마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하며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지도록 열렬히 구하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는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시며 살아있는 계시로부터 빛이 비추고 있다. 태양 빛이 온 세상 전역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 광선이 심령속에 건강을 주는 빛줄기를 발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9.20.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하여 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5.24.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재현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67.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함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우리는 정확하게 닮은 두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자연계 가운데는 물론 인간 가운데서도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지 않은 자들 안에서의 연합, 성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관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증거이다. -원고 99, 1902.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하나이지만 개체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사 그분들과 생명의 연합 관계를 맺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간에 연합하는 접촉체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이다. -원고 111, 1903.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쟁투를 거절하며,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원고 103, 1902.

연합에는 힘이 있고 분열에는 연약함이 있다. -서신 31, 1892.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친밀할 수록 우리 서로간의 연합은 친밀할 것이다. 불화와 불만, 이기심과 자부심은 최상권을 위한 다툼이다. 이런 것은 분열된 마음의 열매이며 영혼의 원수의 제안에 문을 열어준다. 사단은 불화의 씨를 뿌릴 때 크게 기뻐한다. -원고 146, 1902.

연합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 -원고 96, 1902.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심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요 15: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들은 그분을 내주하는 손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그들은 산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사이에는 생생한 연합이 있으며 포도나무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열매가 가지에 열린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 의식을 갖고 있다. 변하기 쉬우며 고아들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담당자라는 귀중한 보증에 대한 믿음을 배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이는 우리로 영원한 평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하늘에 대변인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을 그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자신의 죄의 저주를 짊어질 고아처럼 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믿음을 배양해야 하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자비하고 충성된 대체사장이신 예수님을 매일 명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몇가지 일에서만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심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그분은 우리의 불행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살아계신 구주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대변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다.

우리는 매일 믿음을 행사해야 하며 그 믿음은 행사하므로 매일 증가되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청년 지도자, 1894.10.18.

우리는 가지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갖지 못하며 아무 것도 아니다. -청년 지도자, 1894.10.18.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 나무 안에서 잘 자라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서신 31a, 1894.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언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조건이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성취될 때 우리는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 나무의 번창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92.4.18.

나무의 뿌리는 두가지 역할을 해낸다. 땅에 뿌리를 뺀 나무를 고정시키는 일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 그가 원줄기인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하고 그분의 양분으로 삼게 되면 영적 능력이 가지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가지의 잎이 시들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잎이 말라 떨어져 썩을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폭풍처럼 닥칠 유혹도 그를 뽑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동의 동기를 구속주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에서 찾는다. 주님을 향한 그의 애정은 진실하고 거룩하다. -청년 지도자, 1898.3.24.

열매를 맺게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심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요 15:2)

자아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들의 구속주의 발자취를 엄밀하게 따를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반영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순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매일의 생애와 품성에서 비쳐나올 것이며, 온유와 진리는 그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정을 하게 된다. 열매가 많은 가지들이라도 너무 많은 잎을 때달아 그들의 참 모습이 아닌 것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약간의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의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가지를 치시는데,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과 자아 방종과 교만이 그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부께서는... 여분의 덩굴손들을 잘라서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태양의 치료하는 광선에 틈을 비칠 공간을 주기 위해 이러한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해가 되는 어린 가지들은 잘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를 즐기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전정하시며, 수없이 퍼진 가지들을 치셔서 잎만 만들지 않고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실망과 고통으로 가지를 치셔서 강하고 왜곡된 특성을 지닌 품성의 성장이 연약해지고 더 좋은 특성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 이상들은 포기되어야 하며, 양심은 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심령의 명상은 영적이 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품성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교회증언 4권, 35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원고 85, 1901.

10월 10일(목)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우리가 경솔하게 죄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 주님께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재현하게 할 수 있다. 말이나 태도가 거칠고 험악하거나 험담이나 격한 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악을 금하는 분위기에 있으며 어떤 모양의 악에 대하여도 하찮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한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형식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자선 행위가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 -청년 지도자, 1898.2.10.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런 사람은 부패한 데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는 성령에 순응하며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 이러한 사람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많은 포도송이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맺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며, 불만과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며, 분냄과 근심과 스스로 지어 내는 시험이 아니라 “화평”이다 그것은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이다. -복음교역자, 287, 288.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에게서 생명력을 빌려오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와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용성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사하는 믿음의 정도에 모두 좌우된다. -교회증언 5권, 47, 48.

10월 11일(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버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6)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고, 참 포도나무와 연결됨으로 살아있는 가지로 바뀌지도 않았다. 메마른 이 어린 나무 가지는 산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도록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지 않았다. 그는 열매 맺지 않는 접목임이 드러났다. 그는 섬유질과 섬유질 그리고 나무의 결과 결이 참 포도나무에 접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접목이었다.

잘려 나온 메마른 나무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생명과 그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나무에 접붙이 됨으로써, 가능한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어미 포도나무 동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섬유질과 섬유질, 나무의 결과 결이 연결되고 나무 가지가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의 생명이 되고 포도나무가 맺는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리뷰 앤 헤럴드, 1897.11.16.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15:5)라고 말씀하셨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잎 없는 잔가지를 무성한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여 보라. 그리하면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수액(樹液)과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산 가지가 된다. 섬유와 섬유, 엽맥(葉脈)과 엽맥이 연결된 어린 나무는 굳게 달라붙어 마침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수액 없는 잔가지는 죄인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유한한 자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분과 연결되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교회증언 5권, 591.

마른 것처럼 보이는 가지는 살아 있는 포도나무와 연결됨으로 그 나무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 비슷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접붙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받듯이 죄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렇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는 발작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고 내재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게 된다. -교회증언 4권, 354, 355.

그리스도를 시인함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 33)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함으로 의복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치있게 여기시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몸을 단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만일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한 애착심이 그대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그대에게 이것이나 저것을 입지 말라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며 그대가 몸단장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나무로부터 잎을 잘라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선천적인 기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또 다시 그러한 것들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올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92.5.10.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는 그분의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 세속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참고 극기하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선을 넘어 들어가 이기적인 성향을 마음껏 충족시킨다. 따라서, 그 선을 중앙으로 하여 한 쪽에는 극기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유행에 앞장서고, 경박한 일에 빠지고, 금지된 오락을 마음대로 즐기고, 방중에 빠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 저 쪽으로 갈 수 없다. 그를 위한 장소가 없다. -청년 지도자, 1894.9.6.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수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92.5.10.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연합은 살아있고 진실하며 쇠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과 같다. 이 연합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열매이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들 형제들 사이에 연합된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은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신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 사랑과 교제를 배양하고 품고 지속하기로 서약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가족들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는 자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한가지 목적, 곧 세상에 계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표자들로서 살고 활동할 것이다. 사랑과 극기의 품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사람이 그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증거는 그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나타낼 수 있고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하늘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 되심과 같이 모든 참된 신자들을 그분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으며 그들의 구세주와도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세계 대총회 회보 3기, 1900.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죄없는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만일 그들이 품성에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높이고 품위있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선천적인 악에로의 성질을 남겨두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이 고통당하고 견뎌야 할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도록 고안한 모든 시험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날마다 승리를 얻도록 하셨다... 하늘 선물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반의 대비를 해놓으셨다. 인생의 부모로서는 저희 자녀에게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없다. 또 자기품성을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크신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저들을 채우셨다. 그리함으로써 제자들은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생애하시고, 제자들의 언어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하실 것이었다. 그들은 이후로 그리스도와 저희가 하나임을 아는 것이 특권이였다. 제자들은 그분의 원칙을 소중히 하고 아울러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했다. 저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따르거나 저희 자신의 말을 하지 말 것이었다. 저들이 하는 말은 거룩하게 된 마음에서 나와야 했고 거룩하게 된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했다. 더 이상 그들은 저희 자신의 이기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셔야 했으며... 그분은 저희에게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광과, 그분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을 저희에게 주실 것이었다. -세계 대중회 회보 4기, 1899.

그리스도와 하나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

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연합과 친절과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참으로 존재할 가장 확신을 주는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의 품성 속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다. ...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속에 연합이 나타난다면 세상에 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줄 것인가! -청년 지도자, 1894.8.2.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믿음에는 얼마나 넓은 기초가 있는가! 믿는 자의 영혼 앞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여정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보혜사로서 또 인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혹에 대한 방패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서신 31, 1892.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을 배양하고, 추측이나 시기나 질투나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근절하라. 함께 밀고 나가고 한 사람처럼 일하라. 그대들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영적 교만이나 최상권에 대한 사랑 같은 모든 것을 버리도록 권한다. 다툼이 끝난다면 그대들은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왕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으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반복해서 상고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높이 들어올릴 것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이 연합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죄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천사들과 천사장들은 이런 구속의 큰 경륜에 놀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하늘 아버지와 아들에 감탄하고 사랑한다. -영적선물 3권, 260, 261.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사함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그분의 아버지께 드린 중재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작한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으로 속량함을 입을 때에 그는 그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무리들은 그분의 주된 영광이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10.25.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예복처럼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된다. 날마다 변화가 마음과 심령속에 일어나며 자연적인 경향과 자연적인 길로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을 따라 형성된다. 그들은 영적 지식이 증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른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며 저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저희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도록 사명을 성취하고 저희는 세상의 빛이 되며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온 빛을 가진 자들은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온 광선을 받을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2.15.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존됨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요일 3:6)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각 나라와 각 국민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오직 한가지 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알 수 있다. ...

심령 속에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며 인간 대리자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예수님께서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후부터는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유혹을 저항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는 영혼 속에 거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 하나님께서 낫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따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제 경계선은 분명해 졌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신 10, 1894.

10월 18일(금)

그의 사랑 안에 거함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6)

그대 자신을 동정하는 것은 그대에게 해를 주며 그대가 그대 자신을 동정하며 그대가 마땅히 평가받을 만큼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그대의 일이 너무 어려우며 그대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도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은 영적인 질병의 결과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대가 피로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시험에 들게 되며 그럴 때에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며 원수가 그대를 불평하게 하거나 투덜대게 한다. 그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의 구주를 신뢰하라. 이것이 영적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 만일 그대가 이런 일에 빠지도록 그대의 마음을 허락한다면 원수는 그대가 바쁜 일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의 눈앞에 확대경을 놓아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큰 산처럼 보이도록 한다. ...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지혜로운 심령을 가지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며 이것은 참된 행복의 기초가 된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대의 사상의 문을 잠금으로 그대의 영혼을 끊임없이 지키실 것이며 그런 사상이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실 것인데 이는 그대가 자기 동정의 이런 사상들에 빠지도록 그대의 마음을 허용하면 원수가 와서 그대를 선하고 오직 선하게 도와줄 자들에 관하여 가장 불친절하고 비합리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께 듣고 그분의 권면을 따르라. 그러면 그대는 지혜롭고 강하신 대변인, 참되시고 유일하신 인도자, 그대에게 평강과 행복과 기쁨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성령의 교제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나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8.12.8.

10월 19일(안)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요 6:56)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며 이 말씀의 지식은 우리의 행복을 보증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에 대한 우리의 성공을 보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드리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참된 지식으로 넓어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실천하므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게 한다. 이처럼 그들은 감화에 감화를 주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

사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온갖 일들을 할 것이다. 품성의 현저한 기질을 나타내거나 그들의 말이나 성질로 계속해서 인간의 결함을 나타내는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드러낸다. -청년 지도자, 1895.1.10.

심령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능력을 소성시킬 것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로 산 영혼이 새로 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놓으셨다.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들의 동기의 능력과 저들의 품성의 원료를 저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서신 32, 1907.

10월 20일(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힘 쓰라. 그대가 들어간 새 생명에서 그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현하기로 서약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죄의 옛 생명은 죽고 침례의 서약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들어갔다. 구세주의 품성의 덕성들을 실천하라. 그분의 지혜가 모든 지혜 속에 그대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개심하기 전에 습관이 되었던 죄들은 옛 사람과 함께 벗어버리라.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으라.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비단줄로 한데 묶여질 것이다. ... “너희는 다 형제니라”는 말씀이 모든 믿는 자녀들의 고상한 정서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원고 28, 1897.

10월 21일(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속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마 5:3)

그리스도는 세상을, 하늘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 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확신에 가득한 음조로 축복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더구나 거기에 참석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축복하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독특하고, 거룩한 직분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원한 보물들이 그의 수중에 있었고, 이 보물들을 그가 한 없이 풀어 놓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하는 것은 신성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축복 속에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조직해야 할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그는 모든 영혼의 행복과 기쁨에 필수적인 축복들을 세상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그 큰 군중들 앞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우시며 영원하시고,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보물들을 제시하셨다. ...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는 그가 택하신 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써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배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원고 118, 1905.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부요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산상보훈, 7.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 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찢어 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深淵)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애 3:33)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히 12:10)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분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산상보훈, 9~11.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그리스도께서 억제할 수 없는 힘과, 자신의 위대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하는 권위로서 말씀하셨고, 인간 대리자들은 그들 앞에 계신 분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은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 내리셨던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분이 세계를 소환해 놓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들은 홀린 듯 하였고 환상을 보는 듯 하였으며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의 힘으로 제자리를 잡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 들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아 보였다. 그는 그가 세상의 빛이요, 교회의 권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원고 118, 1905.

예수님께서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美)가 나타나 있다. ...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 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시 149:4). ...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속량하는 것은 자기희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시 37:11)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산상보훈, 14~17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일 4:16)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 119:172)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롬 13:10)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런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 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갈을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靜水)를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얇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 그리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시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18~20.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음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 하셨음이라”(요일 4:19).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출 34:6)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그분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 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 주고 자 심히 갈망하신다. ...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 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 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려 하신 영혼들을 본다. ...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 고리로써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님께서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공홀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공홀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 받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21~23.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사 9:6)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 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감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요일 4:7)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9, 14)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미 5:7) -산상보훈, 27, 28.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적인 원수들의 연합 세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단숨에 해치우려는 마음으로 동맹을 맺고 평화의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오를 가다듬었다.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적의를 품게 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적의를 불러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원칙 곧 그 아래 깔려 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해 온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隊伍)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산상보훈, 28~30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대중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에서 인자보다 더 혹독하게 비방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변함없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셨다. 그들은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했다. 그러나 그분은 원수들 앞에 태연하게 서서 비난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을 유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표명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의 화살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도록 권면하셨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심지(心志)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런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변영 중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성과가 걸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개념치 않는다. 그는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히 11:27) 참으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고후 4:18)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신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고 말씀하셨다...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백성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에서만 받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받기 시작한다. -산상보훈, 32, 35.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행동과 감정을 아시며 그대의 시기와 선입관을 아시고 가장 적은 부정한 일에 대한 그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대의 의도를 아신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고 그대 자신의 감정에 못이겨 적당하지 않은 말로 대하고 이렇게 하여 그대가 그대의 형제와 불화한 것이 알려지면 그대는 그대를 신뢰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대가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다. 이것이 통렬한 증오심을 분출시키는 뿌리가 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대의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날 때 그대는 그대의 잘못된 감정들을 부지런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가? ...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대의 잘못을 자백하고 그대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잘못된 빛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잘못을 자백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요구하신다. ... 그대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거절하면 그대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대의 잘못된 감정과 옳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대가 행한 행동을 정당히 여기고 악을 계속하면 그대가 고통의 뿌리를 심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역사하여 동일한 과멸을 가져올 것이다. ...

그대의 죄의 성질이 무엇이든 자백하라. 만일 오직 하나님께 범한 것이면 오직 그분께만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잘못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에게 또한 자복하라.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대는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남김이 없어야 하며 우리의 사랑은 열렬하고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입술의 증거는 마음을 소성시키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증거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0.12.16.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에게는 회장에까지 미치는 소망, 영혼의 닻같이 분명하고 견고한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한 바람, 불평,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바라보거나 가상적인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때를 미리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들의 모습에는 어디에나 걱정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위안을 찾지 못하고, 어떤 무서운 재난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헛된 오락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결코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들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필요하다. 그들은 거룩하고 풍성한 위로를 깨닫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유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 이 성경 절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들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에 건강이 되고 심령에 힘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566.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된 영혼은 ... 예수님을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의 신뢰는 증가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부드러운 그분의 동정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8.9.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시 104:34)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주님은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는 그를 가까이 하여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 우리는 그의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으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평화는 강과 같아서 영광의 파도는 계속 가슴에 와 부딪친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먹는 경지에 이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그의 사랑 안에 침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묘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우리의 생명인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영계서는 우리를 기질이나 성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시면 그 사실이 숨겨질 수 없는데 이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서신 52, 1894.

11월 1일(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잠 2:6)

그대가 안온한 심령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결한 포부를 붙여넣고 그들 속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그대는 끊임없이 심령을 최고로 계발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하나님의 겸비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라. 즉 가정에서 교훈과 모본으로서 가장 완전하고 철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대의 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힘쓰라. -리뷰 앤 헤럴드, 1891.9.15.

그대는 자신의 경향을 좇지 말아야 한다. 만사에 옳은 본을 보이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그대의 잠자는 정력을 일깨우라. ... 행해져야 할 요긴한 책임을 감당하라. 단조롭고 지루하고 평범하지만 가정생활과 관련이 있는 매우 요긴한 책임을 민첩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새자녀 지도법, 74.

부모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 교양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각성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이상하게도 등한시 해 온, 파내야 할 진리의 광산들이 있다. 이 부주의한 무관심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다. 부모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기름 부음 받은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요구하신다. 그대들은 지금껏 피상적이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소홀히 해 온 일에 착수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협력하실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대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가 향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복음을 가정생활에 실천함으로써 시작하라. -새자녀 지도법, 72, 73.

사상에는 순결함과 고상함을 주고 언행에는 향기를 주는 그런 정신적 훈육에는 더욱 큰 각고의 노력이 필요 된다. 마음의 정원에서 모든 악한 동기를 뿌리 뽑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원고 128, 1901.

11월 2일(안)

건강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하나님과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 계발의 의무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은 최고도로 완전하게 계발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룩하고 보존하는 일에 쓰인 시간은 좋은 일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새자녀 지도법, 395.

인간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막의 각 부분에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길 원하신다. 모든 신경 조직과 근육, 모든 정신적·신체적 유산들은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계획하신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지워진 책임이 얼마나 엄숙한가. 그대의 개인적인 감화력이 선이나 혹은 악을 위해 역사한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몸을 더럽히면, 그대는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롭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혼과 몸과 영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이다. ...

남녀간에 아무도 심신의 어떤 한 기관의 건전한 활동을 약화시키는 습관을 형성할 권리가 없다. ... 담배와 술을 위하여 자신들을 망친 사람들은 그들의 지성의 진가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품부하신 신체의 기능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쇠하고 시들도록 방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향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라신다. 모든 천부의 기능들은 향상되어야 한다. 그중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건물이 되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독 하에 있다. 인간이 자기의 조물주와 더욱 친숙하면 친숙해 질수록 자기의 생명을 더욱 더 신성하게 여길 것이다. -원고 130, 1899.

11월 3일(일)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를 받아야 함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 6:16)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산이요 하나님의 건물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 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계발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향상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죄와 슬픔의 이 세상에서 조차 우리는 열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최고의 영적 능력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에녹도 부패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건물인 인간 집은 면밀하고 주의성 깊은 보호가 요구된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외칠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남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늘 우주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은 온 몸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위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전체 기관의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는 남녀들이 그가 마땅히 되어야 할 위치에 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모든 인체기관이 봉사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하다. ...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가 그들에게 주신 지적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남녀 인간들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충만히 반영되도록 신체 활동을 주의 깊게 교육하고, 계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부여하신 지성을 활용하길 기대하신다. 그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양심을 최상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 심신의 능력과 감정은 최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계발되어야 한다. -원고 130, 1899.

11월 4일(월)

우리는 최선의 예절을 가져야 함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신앙은 인간을 거칠게 하거나 난폭하게 하지 않으며 무례하거나 거만하거나 또는 성미가 급하고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 -서신 134, 1901.

여호와와 궁정에 적합하게 되기 위하여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거친 정신과 조잡한 말과 천박한 품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베틀로 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다. ...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위치에 도달할 자들은 그들이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품성이 하늘의 형상을 닮도록 힘쓰지 않는 자들은 천사들을 슬프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럽히는 짓된 습관과 관습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9.7.4.

하나님께와 또한 피차에 정중한 태도를 취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세상 앞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대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원고 21, 1903.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만약 이 사랑을 충실하게 계발하면 유한한 자들은 유한한 자들과 섞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분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뭉쳐질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성화된 사랑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큰 사업을 할 때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사랑 - 여태껏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더욱 항구적이며, 더욱 예모 바르고, 더욱 희생적인 사랑 - 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잃지 않게 보존해 주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형제 사이를 감싸 준다. 이 위엄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항상 길러 나가야 한다. -서신 10, 1897.

11월 5일(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함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시 101:2)

아무도 주재님께 나서거나 참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란이나 알력이 없이 빛으로서 빛날 것이다.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지혜롭게 권면하시고 일하시기에 탁월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강력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광범위한 사업이며 만일 이 사업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부응하면서 그들의 사업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전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순결한 사상을 품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혼은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곧 그것을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소성시킬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공언하는 제자들의 언행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치욕을 받으신다. 심령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될 것 같으면, 이기적인 편애나 부패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공평과 위선은 없어질 것이다. ...

현 사회의 상태를 볼 때, 청년들만이 아니라 연장자나 경험 있는 자들의 도덕적 헤이함으로 부주의하고 인기를 끄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될 큰 위험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시기와 질투와 험담을 조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적인 사상이나 감정, 그들의 어리석고 경솔한 대화로 하나님의 성령을 내 쫓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소수이다. ...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심령 속에 심겨지고 선한 토질 속에 깊숙이 그 뿌리가 심겨져 있다면 훨씬 다른 특성의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 하나님의 개심시키는 능력만이 심령 속에 순결한 원칙들을 부식시키기에 적합할 것이며 악한 자가 공박할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 언어의 순결함과 그리스도인 예절의 진솔함은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서신 74, 1896.

11월 6일(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보존하심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시 40:11)

그리스도의 종교는 생애를 고상한 표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역사는 인간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도록 이끌 것이다. ... 그대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대의 힘의 근원이신 분을 바라볼 때 애타는 심령으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고 아뢰는 때 그대는 빛을 얻을 것이다. ...

자신을 빛의 통로로 두지 않을 때 그대는 주님께서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대를 보존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악한 교제를 피하고 선한 동무들을 택하라. 심령 속에 뿌려진 진리의 씨는 자라기 위하여 의의 태양의 빛의 광선을 받아야 한다. 싹이 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진리의 씨는 곧 자라날 힘을 잃을 것이며 시들고 만다. 그러나 악한 습관들의 잡초들이 자라나고 번성할 것이다. 사랑과 기쁨과 예절과 온유와 겸손의 귀중한 식물들은 그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깊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청년들이여, 피상적인 경건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라. 그대는 전진하고 있는가? 스스로 겸손함을 나타내고 자주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대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께서서는 사소한 일에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말하듯이 그분을 찾고 시련들을 말하는 자들을 갖기를 바라신다. 그대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대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가 그분께 구한 것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대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대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도록 힘쓰면서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3.2.9.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단장함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 27:4)

고귀한 능력이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감독하에서 사람은 청렴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자격을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형상이시며 인간이 비록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한 형상과 품성을 새기기 위하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이 인위적인 장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고동치게 만들 수 있는 품성의 아름다움, 친절과 애정의 매력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자다운 참된 매력은 단지 외관과 용모의 아름다움이나 재능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요, 겸손하고 고요한 정신, 인내, 관대, 친절 그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고 고통받기를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소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성장해 가면서 더욱 순결하며, 자립하게 되며, 사랑스럽게 자라날 것이다. 이러한 여성을 타락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성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렸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새자녀 지도법, 14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친절하심과 탁월하신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대화는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늘 사물을 명상하기를 즐겨할 것이다. -원고 7, 1888.

성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엡 2:21)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대는 모든 냉담하고 조잡하고 거칠고 예의 없는 행동과 태도를 극복할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진리의 강한 쪼개는 칼이 그들을 하늘 건축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쪼아내고, 네모반듯하게 하고, 윤을 내어야 할 거친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취해 내었다. 그들은 책망과 경고, 권고와 권면을 지닌 선지자들에 의해 쪼아냄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거룩하신 모본자의 모습대로 꼴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대는 도끼와 마치로 쪼아내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대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을 것이며 그대 자신이 고상히 여기는 견해는 도끼나 망치로 도려내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의 거친 부분은 유연하게 되고 자기와 육적 성향은 제거되며 그대에 들은 하늘 건물을 세우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으며 나직하고 빛을 내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며 그대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이 인간 대리자의 윤이 나는 품성 속에서 재현될 것이며 들은 하늘 건물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남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다 더 친절한 마음과 동정심과 예절과 자애심과 사랑으로써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비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그는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고 그가 접촉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사람을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하며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 그는 결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며 결코 예절 없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 -청년 지도자, 1895.1.3.

그 품성을 아름다운 구조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청년들의 특권이다. … 더욱 열심히 주를 구하라. 그러면 그대는 더욱 더 품위 있게 되고 영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910.1.25.

11월 9일(안)

요셉은 그리스도인 신사였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라”(창 39:21)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 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량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법계가 이스라엘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고 그를 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돌려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러진 영광도 그들 위에 다시 반향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다. -청년 지도자, 1897.3.11.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 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이어서 중요성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량·쾌활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명예로운 지위,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고,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젊을 때에 명예를 메는 법을 배웠다. ...

암울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1권, 1897.

11월 10일(일)

아브라함은 무아적인 예절을 나타냈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

아브라함의 식구는 천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의 교훈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장막에서 같이 살았으며, 여기서 그들은 학교에서처럼 참된 신앙의 대표자가 될 준비를 갖춘 교육을 받았다.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피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들 편에서는 압제를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 편에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각자에게 할 바 의무를 부과하였고, 누구든지 그것에 순종함으로써만이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자신의 모본, 곧 일상생활의 묵묵한 감화는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의 변함없는 성실, 곧 왕들의 칭찬을 받았던 덕행과 이기심 없는 예절은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생활 주변에는 향기가 있었다. 곧 품성의 고결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종의 영혼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에는 주인을 위한 법과 종을 위한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자를 위한 훌륭한 길과 가난한 자를 위한 다른 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의 후사로서 공의와 공훈로 대접받았다. -원고 22, 1904.

그는 항상 가장 엄격한 정직의 원칙들을 따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사업 거래에서 그는 예의 있고 존경할 만 했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인 예절로 지배를 받았으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했다. 그는 순결함과 그리스도인 원칙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서신 203, 1903.

각 사람은 힘을 다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예절을 실천할 것이다. -원고 19, 1892.

가능성은 영적 능력에 따라 증가됨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것은 고의적이며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대총회 회보 3기, 1900.

어떤 청년들은... 그들의 편익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정확히 읽고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월한 가치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그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아버지가 학교에 보낸 한 청년을 생각나게 해 준다. 아버지는 훌륭한 교육을 얻도록 아들에게 모든 편익을 주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부하기를 게을리 했다. 그대는 모두 그가 무지하다고 말하겠지만 배우는데 지름길은 없다. 열심을 품고 극기의 노력을 하지 않은 곳에서 건전한 신앙 경험을 바란다는 것은 한 가지로 무익하다. 거룩한 사물에 대해 그대의 무지를 탄식하는 것은 결코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로부터 결코 인정함을 받지 못할 수천 사람의 나태한 눈물과 탄식이 있다. 그리스도인 경험은 저절로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말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심령이 걱정된 것을 행하기로 결심할 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거듭 거듭 노력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84.1.30.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이 청년들은 세속적, 과학적, 종교적 재능들로 인해서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들의 학문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그들의 능력을 충실히 사용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주와 깨달음을 주셨다. -서신 57, 1896.

다니엘의 경우에서 영성이 계발됨에 정확히 비례하여 지적 능력이 증가된다. -리뷰 앤 헤럴드, 1898.3.22.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들과 협력하신 것과 같이 그분의 사업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협력하실 것이다. -청년 지도자, 1903.8.20.

믿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구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많은 청년들은... 암운(暗雲)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 잠기며 인내력이 없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 ... 그들의 육에 속한 마음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성결의 미(美)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것을 갈급하게 될 것이다. ...

만일 그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길이 외적으로 항상 평화스럽고 번창하는 길이 되리라고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행하기에 가장 평안한 길은 아니며, 때로는 그 길이 어둡고 가시밭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대들을 감싸서 그대들을 죄악에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그대들이 그분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활용하고 흐릴 때나 맑을 때를 막론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우기 원하신다. ...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로 날아갈 때 흔히 폭풍우를 만나 산속의 좁고 험한 골짜기로 밀리는 일이 있다. 검고 성난 덩어리 구름들은 독수리와 그의 보금자리가 있고 햇빛이 비치는 산봉우리들 사이를 휩쓸며 지나간다. 한동안 그는 당황한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그 독수리는 마치 그 뻑뻑한 구름을 쓸어버리려는 듯 그의 강한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쪽저쪽으로 돌진한다. ...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위에 있는 평온한 햇빛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는 강렬한 개선의 소리를 발한다. 흑암과 폭풍우는 모두 그의 밑에 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은 그의 주위에 비취고 있다. 그는 높은 바위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보금자리에 도달한다. 그리고 만족한다. 그는 흑암을 통과하여 빛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에게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가 찾는 목적물을 얻음으로써 상급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따라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산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늘빛에서부터 분리하는 두꺼운 벽과 같은 구름을 깨뜨릴 것이다. 우리는 도달하여야 할 믿음의 산봉우리들이 있다. 그 곳에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뿐이다. -청년 지도자, 1898.5.12.

영적 능력을 증가시켜야 함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살전 4:10)

그대들은 유한한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향하여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 3) 천박하고 비열한 것을 버리고 높은 표준에 올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대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종교적 사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체의 사업을 맡기셨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구속 사업과 교화(敎化) 사업에 그분의 협력자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그의 사업에 협력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과 협력하게 하신다. …

청년 남녀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을 일상생활 가운데에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구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는 곧 우리들의 최고의 재질을 활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준비이다. … 그러나 그리스도와 절대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의 힘ियो, 능률ियो, 능력이시다. 우리는 한 순간도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의 능력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빛을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빛과 그 밖에 다른 많은 하늘의 축복들을 가장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라. 끊임없이 개신하라. 더욱 높이, 계속해서 더욱 높이 도달하라. 지금 가치 있는 영원한 실재들을 언제나 주목하면서 정신과 육체의 힘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능력이다. … 그대들이 시작한 사업에서 인내하라. 그대들이 승리를 차례로 얻을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하라. 목적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교육하라. 그대들이 점점 더 큰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표준을 주목하라. -청년 지도자, 1910.1.2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보하기를 원하심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골 1:10, 11)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기도를 통하여 경성을 통하여, 지식과 총명에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 …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함에 하나님과 전심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도 넓고 그렇게도 완전하다.

우리 편에서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매일 신선한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설을 읽을 시간이나 모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유익되고 힘을 주지 않는 어떤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 하늘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단은 매일 그대들의 행로에 사리사욕을 위한 기만적이며 그럴 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그대들이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 그대들로, 소망과 안위와 보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만들 것이다. …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과 목적의 견고함과 우리 믿음의 원칙들에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충성함을 드러낼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생애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존절히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참되고 열렬한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며 받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고 떠는 영혼을 결코 혼자 버려 두거나 배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

우리들이 예리하고 성화된 식별력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대한 보장을 인식하고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하여 그 허락들을 전유(專有)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6.10.4.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니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 10:12)

진리의 원칙들이 우리의 품성과 생애 속에 짜여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 비취는 빛의 모든 광선들을 품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된 생애를 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분량의 축복을 잃고 있다. ...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전진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빛의 거룩한 광선들을 모으고 세상에서 하늘로 향해가는 밝은 자취를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들을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등을 손질하고 타오르게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화 없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의 사역에 나타나는 무능력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개심시키는 능력을 느끼지 않고 있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들의 사역의 가장 큰 가지로부터 가장 작은 가지를 쳐다보고 잎사귀만이 무성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 ...

내가 아이오와 주를 방문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농부들이 새로운 땅을 기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한 조가 되어 땅을 깊이 갈기 위하여 굉장한 애쓰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일꾼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노력을 기쁨으로 힘을 얻고 근육에 힘이 솟는 것을 보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터로 갈 때 구도자들의 심령의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그들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할 것이다. ... 그들은 고난에 접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효능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901.1.10.

거룩한 진리를 마음에 저장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

저희 마음에 거룩한 진리를 저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각 자녀의 의무이며 그가 이것을 행할수록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힘을 얻게 되며 그는 하나님의 깊은 사물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욱 더 열렬하고 원기를 얻게 될 것이며 진리의 원칙이 그의 매일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류를 축복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면 힘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께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그 본래 최고의 의미에까지 향상되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인품을 따라 행동할 것 같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그것은 장차 올 생애에서 영광과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정결함과 사랑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며 그들 모든 주위에 빛과 기쁨을 뿌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가장 진지하고 열렬한 감사를 자아 내기에 충분하며 우리의 입술로부터는 가장 열광적인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요하며 충만하며 거저 주신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조건에 응하는 자마다 그들의 모든 복된 자산을 그들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생애의 여정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하실 것이며 경건의 축복의 실례로 말미암아 그의 동료들에 축복이 되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만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과 결부시켜 기억하기를 바라신다. -원고 96, 1902.

11월 17일(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3)

모든 환경 아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자. ...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모든 것에 최선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토록 교육시키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토록 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귀하신 약속의 충만함을 심령 속에 간직하자. 이처럼 하여 우리는 하늘 천사들의 방언을 배울 수 있으며 만일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늘 천사들을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우리는 품성의 완전을 얻도록 항상 해야 하며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단의 큰 능력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자. ...

각 영혼에게 있어서 두 세력이 승리를 위하여 열렬히 싸우고 있다. 사단에 의해 인도되는 불신의 세력이 그 힘을 다하여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분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집결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믿음의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 매 시간마다 하늘 우주세계에서 쟁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백병전의 함성이며 큰 문제는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이 문제는 각 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쪽 아니면 저쪽의 어느 한편을 택해야 한다. 전투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 우리는 이 전투를 위해 준비하도록 강권함을 받는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경고의 음성은 되풀이 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6.28.

11월 18일(월)

하나님께서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들 부모에 대한 어린 자녀들의 관계와 동일하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데 우리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마땅히 알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자의에 빠져 있고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원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견고한 발걸음으로 걸어야 할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쉽다.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 자가 속절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나 어린 아이들이 서로 저희 부모를 믿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속절없는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께 매달려야 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운동을 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 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일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팔을 붙잡는 것을 느슨하게 하자마자 인간의 팔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바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도달했던 것보다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기대하시는 시대이다. 날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며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더욱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청년 지도자, 1900.5.10.

어린이의 일을 버려야 함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우리는 영적 사물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어린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방금 받아들인 자들처럼 우리 자신들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도과 권고는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전진한 만큼 지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열 살 먹은 아이가 여섯 살 먹은 아이처럼 말한다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장년기에 도달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할 것인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의 연령이나 기회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적 능력을 그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린이가 자라나면서 그 연령에 적합하게 그의 성장에 따라 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경험 가운데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도록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편의와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마지막 큰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우리가 획득했어야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시는 이런 사물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함으로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열렬히 사모할 것이다. -서신 16, 1886.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초심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는 정신수양과 분명한 식별력의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사업에 필요하다. 그는 그대들이 사다리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라시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들이 하늘 왕의 자녀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를 이해하기를 바라신다. -서신 182, 190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4, 15)

그대가 서로를 연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그대 자신의 감화력이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서신 16, 1886.

그대의 형제들 속에서 그대의 신용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라. 왜냐하면 그대가 악을 생각할 때 그대는 악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대는 그대 자신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려고 할 때에 그대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 것이다. -서신 182, 1901.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실패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담당자로 삼지 않으셨다. 우리 자신의 짐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 철저한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우리들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결점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는 각 사람의 생애의 환경을 이해하시고 각 자가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편익으로 인간을 평가하신다. 그는 인간 대리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진리를 얻기 위하여 베푸신 기회를 숙고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평가를 하는 자는 자신의 품성을 다른 사람의 품성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그의 생애를 판단할 것이다. ...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에서 어떻게 악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실지를 보여주신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청년 지도자, 1908.2.11.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고전 14:12)

진리를 믿고 끊임없이 향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뒤로 물러가거나 무관심할 시간이 없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물에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대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갖고 각 사람의 사업과 품성을 시험할 때를 통하여 그대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사물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의 능력을 영적 사물에 사용하게 해서 힘에 힘을 얻도록 하라.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할 아무런 계단도 밟고 있지 않다. ... 그들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산 체험이 없다. ...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자유를 주며 열심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명철함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산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 생애 속에 하늘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는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

의심의 열매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오! 그대 주위를 바라보고 사단에 의해 행해진 대황폐를 보라. 오류와 거짓과 이교가 사람들의 속임 받은 심령 속에서 광란을 일으키고 있다. 각 세기를 통하여 악마는 크게 성공하며 그의 꾀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 지나가 버린 슬픈 생애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나방들이 불로 날아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악마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준비한 파멸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 ... “천지는 없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8.1.10.

탁월하게 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전 14:12)

청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책 중의 하나는 유익한 직업이다. 만일 그들이 부지런한 습관을 배양하여 그들의 모든 시간을 선용한다면 자신의 신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부질없는 백일몽에 빠질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쁜 습관을 형성하거나 나쁜 친구를 사귄 위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힘써 일하지 않고 탁월하게 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에게 가르치라. ...

모든 청년들은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들을 최고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더 높은 도덕적·지적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고 확고부동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는 향락의 목소리에 대하여는 귀를 막아야 하며 때때로 젊은 친구들의 간청을 거절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도시가 더욱 이상적이며 유익한 거처라고 판단하여 시골의 집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크고 수많은 유혹거리에 접하게 만든다. 소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거리의 교육을 받게 되고 한 걸음 두 걸음씩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다가는 급기야는 일체의 선과 순결과 거룩한 것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주위의 감화가 육체적·도덕적 건강에 이상적인 시골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

부모들의 불찰로 인하여 우리의 도시의 청년들은 자신의 앞길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나태함의 열매로 항상 일어날 것이다. 구호소와 감옥과 교수대에서 부모들의 의무를 등한히 한 슬픈 사연들이 공포되고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87. 9. 13.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진보하므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대의 경험 속에서 그대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무가치함을 느낄 것이며 품성의 완전을 주장할 기질을 버릴 것이며 오직 그대의 구속주의 완전하심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대의 경험 가운데 더욱 철저하고 더욱 많을수록 그대 자신에 대한 견해를 더욱 낮게 평가할 것이다. …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화이다. 성경이 말하는 개심은 모든 이기심과 자화자찬과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계속적이고 내재하는 선한 활동으로 인도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대는 진리의 편에서 강하고 효력이 있는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적으로 아는 것은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축복을 동반할 것이다. 그대가 한 가지나 두 가지나 혹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모두가 그대를 믿고 위탁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그대의 선한 말이나 행동이 그대 자신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가져오도록 그대의 빛을 비추도록 의도하지 않고 모든 선행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영광과 높임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생애로 품성의 모본을 주셨다. 그 표준에 따라 세상이 그분을 닮는 일이 얼마나 미약한가! 그 모든 감화력이 소실되고 말았다. -리뷰 앤 헤럴드, 1888.10.16.

그대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그대는 전진하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 영적 건강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런 사람의 성장에는 제한이 없다. -교회증언 5권, 264, 265.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함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3)

만물의 종말은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우리의 세대에 마쳐야만 한다. 우리 대장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아가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하신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어야 한다. …

기도는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소, 탄원, 의뢰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국가간의 여러 사정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그 능력 만이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들을 성령의 연합으로 일하게 하고 평강의 끈으로 서로를 묶어준다. 기도,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인간의 참된 상태, 곧 그 무가치함을 인식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준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여 은혜의 교훈을 사람의 마음에 점점 들어가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음의 말씀에 예증되어 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녘에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 태양이 은혜와 사랑의 사명을 다하고 비취는 것처럼, 대낮의 황금빛이 하늘의 창공과 아름다운 숲과 산을 찬란하게 비추고 밤의 어두움을 제하고 세상을 깨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랑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호주 연합회 보고서, 1904.11.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편에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바치는 것이 모든 청년들의 의무이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책에 한 사람으로서 기록될 것이며 사람들의 평가 뿐 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4.26.

11월 25일(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많은 청년들은 그들이 어떤 큰일을 하기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며 어떤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들을 탐내지만 그들이 그들의 헛된 소망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실패의 생애를 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생애의 길에서 사랑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고 있다. ...

오! 그대는 그대의 평화를 위한 일과 그대의 애정과 그대의 사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봉사를 그리스도께 바칠 일을 지금 생각해야 한다.

사단은 그대의 모든 정력을 그에게 바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계획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힘을 쓰고 있다. 비록 그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단은 그대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그의 대리자가 되게 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게 하고 있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며 그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의 그물로 그대를 묶으려고 힘쓴다. 그대가 지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더욱 매력적일 수록 그는 더욱 열심히 그대의 여러 가지 재능을 그를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의 검은 깃발 아래 모으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만일 그가 마음을 열 빠지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찢더냐”고 물었다. 사단은 마법을 거는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해 왔으며 그 자신이 그 보좌에 앉으려고 노력한다.

아들과 딸들이여, 내가 간원하노니, 악한 자의 체계로부터 떠나라. 그대들의 피난처이신 예수께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청년 지도자, 1893.3.2.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결심하고 그대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청년 지도자, 1894.7.19.

11월 26일(화)

우리의 경험이 영원에 까지 도달할 것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평생사업은 영생을 위한 준비이다. 이 세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토록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계속되어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더욱 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구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지식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와 새로운 미(美)를 가지고 마음에 전개될 것이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신비한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66.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지도아래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지금 은혜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서신 264, 1903.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일편단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지혜를 더욱 열심히, 또한 부지런히 구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6.28.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무엇이 영광인가? 품성이다. 그리고 그는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결하게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다. -원고 10, 1894.

11월 27일(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형상을 닮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업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세속적인 위대함에 이른 성공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하늘의 거룩한 기록 가운데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든 장점이 적혀 있다. 인간의 불순종은 그가 확실히 받게 될 처벌에 대한 증거로써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중대한 관점에 따라 인간을 취급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한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활동 무대에 등장하기 수백년 전에 선지자는 성령의 지도하에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

과거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활동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세대들을 통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역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음성은 높임을 받지 않겠는가? 이 모든 역사, 곧 나라들이 예언된 시각과 장소에서 차례차례 나타나 저들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부지중에 증거하도록 계획을 세운 권능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완수하심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각 사람은 진리나 오류, 혹은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생각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을 낳고 있다. ...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연약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저들은 분명 파도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다음 파도를 따라 저들의 항구로 더욱 더 가까이 솟아오를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말씀하신다. -청년 지도자, 1903.9.29.

그대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그러면 바라봄으로 그대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호주 연합회 보고서, 1904.11.1.

11월 28일(목)

그의 영광의 섬광을 붙잡기를 바랍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계시를 얻기 위하여 높이, 더욱 높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분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에서 반사될 때,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완전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출 34:6)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그들 앞에는 진리의 넓은 평원과 능력의 큰 자원(資源)이 놓여 있다. 영광스러운 사물들이 계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한 특권과 의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귀중한 믿음은 품성의 힘과 고결함을 준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탐닉될 때, 진리에 대한 지각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순결한 마음과 명석한 사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높고 고상해질 것이다. 거룩한 사상의 순결한 분위기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변화를 얻게 된다. 진리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원대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바뀌어진다. 그리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능력이 확대된다. -치료봉사, 464~466.

찬양으로 충만해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시 34:1)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리 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서로 사귄 때에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고후 3:18)를 것이다. -시대의 소망, 83.

예수님께서서는 ... 그대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갈보리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반사되는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마다 그대들을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날마다 축복이 어떻게 또 어디로부터 이르러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그대들의 마음에 감사의 정신을 일으키게 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대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인자하심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빗방울처럼 무수한 까닭이다. 자비의 구름이 그대들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곧 방울이 되어 떨어지려 하고 있다. 만일 그대들이 구원의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긴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화평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

그대들은 예수님을 죄를 사유해 주시고 그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에서 행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믿어라. 주님께서서는, 그대들이 그분의 존전에서 함께 살고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 - 청년 지도자, 1887.15.

우리는 그와 같이 됨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는 일에 머물러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 우리는 품성에 변화함을 받는다. - 청년 지도자, 1887.15.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대한 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 치료봉사, 457.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시편 62편 5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때,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 - 산상보훈, 19.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그는 크신 모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치신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것처럼 면밀히 연구해 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 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 온 정신이 스며들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된다. - 리뷰 앤 헤럴드, 1887.3.15.

지금은 인치는 시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계 7:3)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43, 44.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불러내심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다면, 만일 우리 영혼이 모든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쳐질 것이며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하여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잃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는 심령으로 더욱 연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서신 135, 1897.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불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초기문집 58.

만날만한 때에 주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늦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사업이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생각해 왔다. 어떤 느낌으로 과거를 돌이켜 볼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노력이 더욱 열렬했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그 때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

우리에게 놓여진 엄숙한 책임에 비추어서 미래를 명상하고 그것을 맞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힘쓰자. ... 마지막 날의 엄숙한 집회에서, 온 우주가 듣는 가운데서 죄인이 정죄함을 받은 이유가 낭독될 것이다. 그 때에야 부모들은 자녀들의 은밀한 생활이 어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였는지를 볼 것이다. 마음속의 은밀한 것들과 동기가 모두 드러날 것이니, 숨겨진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심판과 관련이 있는 엄숙한 사물을 농락한 자들은 그 두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 숙연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썬을 멸시한 자들은 그 때에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를 대면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날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 오래 지체되었지만은 그 시기가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심히 빨리 온다. ...

친애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엄숙한 사실을 숙고하고 그대들의 이기적이고 죄스러운 행동,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대들 자신의 행동의 과정이 멸망을 위한 것인가 혹은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축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대들의 품성을 꼴 짓게 될 것이다.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신 교훈에 그대들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청년 지도자, 1892.7.21.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됨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4:7)

갈라디아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약속한 기별을 기뻐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가운데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남녀를 구속하러 오신 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전에는 결코 참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다.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갈 1:3, 4, 3:2, 26)다.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바울은 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갈 4:12)고 말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다. 그의 입술은 제단에서 가져온 타는 숯불로 지짐을 받았으므로 그는 신체적인 결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할 수가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는 영적인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게 되었다. ...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 -사도행적, 207~209.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위험들이 모든 길을 에워싸고 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제할 강한 품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이 특성들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것들은 저주로 판명될 것이다. 만일 지금 인기의 과도를 타고 있는 자들이 현기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비의 기적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같은 처지에 있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이기심 없이 자신을 바치고 원칙에서 추호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팔로 그들에게 강한 조력자가 되심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재능을 소유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사람에게 유혹의 손을 끊임없이 뻗고 교만과 야망으로 부풀게 하고자 언제나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 너무도 흔히 그는 독존적이요 자부심이 강한 상태가 되어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는 그대들의 생애의 직무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능률과 칭찬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양 기도하고 의무는 모두 그대들 자신의 것인 양 노력해야 한다. 그대들이 능력을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가져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소유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 겸손하고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이다. ... 매일의 간구로 얻는 하늘의 축복은 영혼에게 생명의 떡과 같을 것이며, 일이 언제나 푸르고 열매가 시절을 따라 나타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에게 도덕적·영적 힘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교회증언 4권, 538, 539.

근신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오늘날의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경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원수를 대적하고 꺾이고 제시하는 것에 속지 말라. 그 자신의 유한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그분의 힘 있는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 인간 대리자의 사업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대 자신이 유한한 힘으로 한 결심은 모래로 만든 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나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며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움 받게 되며 이것만이, 곧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만이 마귀의 꾀계를 대항하여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각 영혼의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는데 있으며 약속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들이 말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 외에는 안전의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도록 하자.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 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2.8.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2, 13)

오,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 거룩한 생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뛰어난 재능이나 높은 문벌이나 놀라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우아한 심령,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랫동안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데 있다. 이것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분의 임재이다. …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

사소한 일에 그대의 시간이나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주제에 두라. 이런 주제의 연구는 그대에게 마지막 날의 시련과 고통을 통과할 힘을 줄 것이며 그대는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에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구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속에 내재하는 최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하에 놓이게 할 영적 지도자와 교사를 갖게 된다. 만일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지배하는 영향력을 끼쳤다면, 만일 마음과 심령이 그 제한시키는 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지금 교회와 가족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은 발을 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개심한 가장 아래 가정 정결한 축복이 강림하였을 것이며 이런 가장으로부터의 감화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조류의 능력을 주도록 전파되었을 것이다. …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며 모든 자기 방종을 버리고 모든 교만, 모든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보내는 귀중한 순간들은 명상과 기도에 바쳐져야 한다. …

그리스도의 대관식 날에 그분은 점이나 흙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분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불멸의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4.11.24.

흠이 없어야 함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5)

죄는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많은 천사들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훼손시켰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사랑으로 사람이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길을 제공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선두에 서서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자 오셨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인적인 성화, 곧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 거룩한 도성에는 더러운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과학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기질이 우아하며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영혼들을 둘러싼 분위기는 상쾌하게 될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가락 끝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있다. 구주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 하는데 바쳐야 할 귀중한 시간이 악한 보고를 하는데 허비되고 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이 품성에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참으로 개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성향을 갖지 않는다. 그의 입술은 성화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 악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유혹을 이긴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4.11.24.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나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사단은 오늘날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했던 동일한 유혹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충성의 대가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단은 모든 면에 우리들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으며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909.1.28.

그리스도인은 죄악적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품성의 결함들을 마음에 품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형상을 따라 그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 그대의 결함있는 성격이 무엇이든지간에 주님의 영은 그대로 하여금 능히 그 결함들을 분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는 이 기고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

진리는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진리는 역사하여 품성을 정결하게 한다. 그것은 인생을 순화시키고 향상시키며 또한 그대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가신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가 있으며 만일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날자 불명의 원고, 51.

각 사람에게 줄 상이 그분에게 있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업은 미구에 마쳐지고, 각 사람은 그의 일한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성도들의 상급과 불멸의 유업을 보았으며, 진리를 위하여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은 너무도 값싸다고 생각할 것을 보았다. - 교회증언 1권, 381.

매일 이루지 못한 의무와, 태만, 이기심, 속임, 사기, 바가지 씌우기 등이 잔뜩 기록으로 남는다. 도대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얼마만큼의 악행이 누적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보상이 그분에게 있으며, 그분의 업적이 그분 앞에 있어서,”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 교회증언 2권, 160.

모든 선한 행동, 못된 행동, 그 행동이 남에게 미친 영향, 이 모든 것이 모든 비밀을 보시는 분, 마음의 감찰자에 의해서 살펴지고 있다. 그리고 보상은 그 행동의 동기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520.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깝고도 심히 가깝다. 일할 시간은 짧고 남녀들은 죽어 가고 있다. ... 우리가 멸망해 가는 세상의 필요를 이해하려면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기별은 이것이다. 준비하라.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대들의 등을 손질하여 진리의 빛이 길과 산을 가에 비취게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경고 받아야 할 세상이 있다. ...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정신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지도를 바라는 그분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계획이 어느 곳에서 제시될지라도 실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열성을 보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 교회증언 9권, 105~108.

지키고 준비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개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빛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복에 관하여 얼마나 열렬히 말했는가를 기억한다.

“지키어”라는 말씀은 그대의 죄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에게 주신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라는 뜻이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단은 그대를 낙심케 하려고 하나님을 섬겨 보아야 별수 없다고 한다. 즉 그것은 별 이득도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쾌락과 기쁨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대는 미래의 세계를 값으로 주고 세상 쾌락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그런 값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모든 빛을 굳게 잡고 빛대로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함으로써 그분을 돕는 손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칠 때 그대는 하늘의 크신 삼대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 앞에서 서약을 했다. 이 서약을 굳게 “지키어라.” 원수는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만일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예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해력을 밝게 해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는가! - 원고 92, 1901.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 매순간마다 충실히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리뷰 앤 헤럴드, 1903.2.3.

거룩한 대화로 주의 오심을 촉진함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벧후 3:11, 12)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다. ...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1, 12)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

하늘로 가는 길은 험난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길에 있으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험한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으며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결국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조차 내가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실 때 불평할 것인가? ... 아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나의 상급이 하늘에 있음을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영광 중에 유업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

우리는 말이나 우리의 의복이나 대화나 행동의 모든 면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 나의 애정과 관심과 보물과 모든 것은 오는 세상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의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을 뵈기를 갈망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52.6.10.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재림하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 18:7)

어두움의 신비를 대낮같이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시대에 의의 태양 광선에 저희 마음과 심령을 여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익을 받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은 긍휼의 날이요,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된다. ...

세상 모든 지역에서 성경을 상고하므로 빛을 얻고, 또한 아직도 더 큰 빛을 얻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극악한 죄와 허물 속에서 나와 일찍이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곧 분별이 있을 것이다. ...

때때로 주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그분께서는 종종 나라들이나, 가족들이나, 개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분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하셨다. 그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전하시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 알려지게 하셨다.

여호와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세계적인 것이 될 때,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해 내실 것이다. ... 약속은 “주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세계 대총회 회보 1기, 1900.

12월 13일(금)

주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실 것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시 27:5)

참된 심령과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안위가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비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것으로 가득해지고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의 닦으로서 확실하고 견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몰아칠 때 이 소망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그 은밀한 곳에 숨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54.5.

우리 앞에 환난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세상에 임하고 있다. 땅의 민족들이 전율할 것이며 사방이 시련과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사람들의 심령은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록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초막같이 사라질 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리뷰 앤 헤럴드, 1887.3.15.

그리스도께서는 쟁투의 종국을 아신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곧 이어 그분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모든 혼란한 상태가 이 세상에 올 것이며 모든 난폭함과 죄악이 성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사건들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징조이다. 그의 오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보존할 것이다. 그는 그분 자신이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고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죄악에서 땅을 정결하게 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서신 264, 1903.

12월 14일(안)

은혜의 시기는 속히 끝나고 있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히 마음을 살피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와 같으리라”(마 24:39)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단 5:27)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5.11.9.

12월 15일(일)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계 19:9)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공훈과 풍성한 은총을 드러내심으로서 인간의 심령에 관하여 실험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율법에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꾀변과 기만에 대해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는 사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과 그룹 천사, 인간 매개자들과 협력하도록 사명을 받은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단련을 통하여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을 계발시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직분과 즐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소유로 삼으신 이들로부터 큰 영광의 소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저장고이다. 이곳에서 그분의 공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의 풍성함이 충만하고도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속에서 선언하신 것, 곧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그분께 베푸신 사랑처럼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더불어 하나 되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은 하늘 천사들에게 경이로운 사실이며, 그들의 큰 기쁨이다. 그분의 성령을 풍성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불의 장벽으로 둘러 주시는 것과 같아서 지옥의 권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때 묻지 않은 순결과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함 가운데서 있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수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모든 영광의 대 발원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충해 주는 존재로 바라보신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8, 19.

12월 16일(월)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 25:31)

어떤 인간적인 언어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입으셨던 빛의 의복을 입고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의 길을 호위할 것이다. 나팔소리가 울리고, 잠자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귀에 들릴 것이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 나올 것이다.” - 리뷰 앤 헤럴드, 1899.9.5.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길에 그리스도를 옹위할 것이다. 온 세계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반면 모든 성도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그분의 광휘에서 비취겠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은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다. - 선지자와 왕, 720.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0, 27)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마 25: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 … 현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 썩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불멸(不滅)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22, 323.

땅의 충실한 자가 구원 받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원고 151, 1899.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 준 불기둥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다. 반역자들을 치 시기에 강한 팔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선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에, 의인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 시대의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이다. …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 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2, 3) -사도행적, 589, 590.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6)

생명의 시여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아올 그 승리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서신 65a, 1894.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모든 죽은 자들의 거소에 이시 울릴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품성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켜 줄 것이다.

지금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얻을 승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멸로 관을 씌우실 것이다.

거기에는 부활한 무리들이 서 있게 된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생각은 죽음과 그 격렬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생각은 무덤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한다. … 그들은 거기에 섰다가 마지막으로 불멸의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올라간다. … 그들의 양편에는 천사들이 열을 지어 올라간다. … 그 때 천사들의 합창대는 승리의 합창을 하며 양쪽 옆의 천사들도 그 노래를 이어 부르며 구속받은 무리들도 마치 그들이 지상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 합창에 참여한다. 오! 얼마나 훌륭한 음악인가! 거기에는 조화가 되지 않는 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음성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 합당하다”하고 선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수고하신 결과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98.9.20.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큰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오직 거룩한 자들과 겸손의 모본이신 그분을 온전히 따르던 자들만이 희열에 넘쳐 그분을 바라보며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저를 기다렸으니 저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며 그 나팔 소리에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옷 입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변화된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끌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52.6.1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동무가 되셨고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긴밀히 접촉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그들 위에 여호와 의 영광이 비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그들은 위엄 가운데 계신 왕의 광채와 영광의 흐리지 않는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하늘과 교통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앙을 맞으러 나간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 -실물교훈, 421.

모든 민족이 심판 받기 위해 모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마 25:32)

심판의 장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그분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각 사람의 사건이 결정되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 때 죄는 때 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끔찍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8.9.20.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 우리의 행위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행위들이 그 때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동전 두 닢을 연보께에 넣은 과부의 행위도 드러나게 된다. 시원한 내우 한잔 대접한 것, 형무소를 방문한 것, 배고픈 자를 먹인 것, 모든 행위에는 각각 그 대가가 따른다. ...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의무, 이기적인 행동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공개된 법정에서 수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매우 다른 관점에서 드러날 것이다. ... 이런 이기적인 쾌락과 방종은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만일 우리가 악을 통하여서 뿐 아니라 선한 보고를 통하여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취했다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9.9.5.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품성은 장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늘에서 왕의 가족이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늘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애야, 더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의인은 모든 은혜와 모든 귀하고 거룩한 재능을 위의 궁정으로 가지고 갈 것이며 땅을 하늘과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충성되고 진실 된 백성인지 아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5.3.26.

12월 21일(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 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 이니라”(약 1:12)

주님께서 그분의 보배들을 만드실 때, 진실한 자, 솔직한 자, 정직한 자들은 기쁨으로 우리러 보는 대상이 될 것이다.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별이 박힌 면류관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취 오는 빛이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96.

하늘의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그대를 위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대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라. 그대의 주님을 평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52.12.1.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존귀와 불멸로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대는 세상의 영광이나 위인들의 훌륭한 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모두가 허무란 것들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들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들은 곧 티끌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나는 영원한 영광, 불멸의 영광,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광과 세상 어느 군주의 머리에 씌어졌던 면류관보다 더 귀중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69.8.17.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황금으로 된 수금을 타면서 왕과 그분의 승리의 기념품들인 자들 곧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구속하신 자들 곧 고통과 자아희생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사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자들을 동반하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신다. -리뷰 앤 헤럴드, 1904.11.24.

12월 22일(일)

큰 무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그분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 빛들로”(빌 2:15) 빛날 것이다. -선지자와 왕, 188, 189.

오래지 않아서 웅대한 모임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 -원고 101, 1908.

면류관은 각 사람의 머리에 씌워질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말씀이 발하여질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 거룩한 천사들이 거문고를 켜며 주님께서서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기를 바라신다. -원고 113, 1908.

나라를 상속함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분 자신에게 한 것처럼 상급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회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사업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탁월한 사랑인가! 비록 이교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지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자연계를 통하여 말하는 소리를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업을 언급하고 계시다. 성령께서는 미개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종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동정심을 일깨워 주셔서 그들의 속성에 반대되고 그의 교육에 반대되는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신다. 어두운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하여 교육받지 않은 야만인들의 속성을 온유하게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야만인의 심령 속에 심으시고 선교사업의 필요성을 돕게 하시고 비록 그가 진리나 생명의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기 전에 조차도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고 그에게 운집한 군중을 바라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위하여 탄원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심령과 마음에 역사하시고, 전쟁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멸하려고 결정했어도 그 야만인의 중재로 그 결정을 번복하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다. 오, 이 야만인 한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 사랑을 보라!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석에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98.9.20.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품성을 꼴 지워야 할 얼마나 진지한 사상인가!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싸움인가? 만일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며 그렇게 할 사람은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승리자를 기다리는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대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극기와 봉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인가? ...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생명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쪽으로 기우려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고 그가 들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수행할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사업을 집행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이며 승리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도성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낙원의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중에 계신 왕을 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인간의 품성의 완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성을 굳게 붙잡으므로 우리는 모든 악에 기우는 기질과 욕망을 정복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신성의 능력을 가질 것이다. -원고 87, 1909.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감사한다. ...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볼 믿음을 가진다. 고귀한 열매가 열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그 영광나라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리뷰 앤 헤럴드, 1884.12.23.

만국을 다스릴 권능을 받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 2:26)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약속하셨다.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고독하고 슬픈 심정을 생각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보증을 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는 음성을 들었다.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제자들의 희망은 새로워졌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눅 24:52, 53)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가셨고, 저희들만으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의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 날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의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9, 340.

복음은 정복에서 정복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해야 한다. 온 하늘 아래서 왕국의 존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 나라를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219.

끝이 없는 생명이 주어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1)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생명은 의인이 받을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신 30:15)노라고 말하였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아담에게 선고된 사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생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아담이 범죄 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행 24: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계 20:6)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4.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그의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배한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초기문집, 295.

12월 27일(금)

합당한 자로서 흰 옷을 입고 다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

우리가 승리자들로서 “흰 옷을 입”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들처럼 우리의 충성됨을 인정하실 것이며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그와 함께 다닐 것이며 이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중하여 우리는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런 고무적인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얼마나 열렬히 노력할 것인가! ...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원수와 그의 모든 악의 대리자들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매순간 우리는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한 순간도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시련의 시간에 구원하실 그의 권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손을 그에게 얹고 그의 전능하신 권세로 떠 받쳐져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908.7.9.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고 그가 마련해 놓으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면 그대는 혼인예복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옷을 입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만일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집에 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실 열망을 갖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분 자신을 그렇게 크게 희생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분의 구속받은 가족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분의 식탁에 앉아 즐기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다. -청년 지도자, 1886.8.11.

12월 28일(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겨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어야 하며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이름이 구주 그분에 의해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는 특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리뷰 앤 헤럴드, 1908.7.9.

이 약속 안에 포함된 것은 얼마나 고귀한 보증인가! 그대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시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권유가 필요한가? 누가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누가 대왕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아래 모일 것인가? ...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모든 투쟁에 신령한 계시가 주어질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4.9.6.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남아 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咆哮)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 남은 무리는 용서받고 가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과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교회증언 5권, 475, 476.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됨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12)

어떤 사람이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있다. …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은 그가 도성의 문에 들어감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것이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지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의미한다. -청년 지도자, 1886.8.18.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투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마지막이다. 우리는 지금 그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두 편이 최상권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편 아니면 저 편에서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의 입장을 세운다면, 만일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세상 앞에 그분을 시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영화롭게 하도록 선택한 자에 관하여 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편이 어느 편이지를 분간할 수 없는 입자에 있을 수 없다. …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밖에서 또한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든 영혼에게 이 길을 주시기 위하여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와와의 산 연결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을 희망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비록 우리가 전진하는 때 단계마다 반대대를 직면해도 그러해야 한다. …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법정에서 다스려야 하며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리뷰 앤 헤럴드, 1908.7.9.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행할 사업이 우리 각 사람에게 놓여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싸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우리가 도성 문이 조금 열린다면, 만일 우리가 그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왕을 뵈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반드시 이겨야 한다. … 그분은 그분의 왕복을 벗으시고, … 그분의 부요하심을 벗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며 이는 우리로 불멸의 유업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흑암의 임금과 싸워 이기셨다. …

극기의 공과는 그 어머니의 팔에 안기는 유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는 그의 의지가 복종되도록 순종의 공과를 가르침 받아야 한다. … 누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보호에 맡기셨는가? 그들은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들이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집의 궁전에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지기 위하여 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키라. … 얼마나 귀중한 사업인가! … 그대의 사업에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들에게 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감화를 끼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이끌라 그러면 그들은 가장 큰 유혹을 물리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승리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1.7.9.

그대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욱 열심히, 조심하여 연구하지 않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곳에서 그대는 … 얻어야 할 승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대는 흠 없는 품성의 고귀한 흰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결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83.10.10.

12월 31일(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됨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0.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불멸의 유업과 영원한 실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며 하늘 왕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결코 쇠함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질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8.8.25.

하늘 왕께서는 그대의 존재를 고상하게 하고, 폭넓게 하며,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가 소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대의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보조를 맞추어 그대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신다. 다가 올 세상의 전망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얼마나 큰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깊고 무한한가! -교회증언 3권, 458.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은 제한이 없다. 타락하지 않은 하늘과 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입술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갖고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임마누엘 대왕, 왕 중 왕, 주님의 깃발아래 서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86.10.20.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후사였으며, 이 세상 나라들의 통치와 영광이 그분께 약속되어 있었다. ...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들이다. 그리고 나라와 통치가 그들에게 속한다. -교회증언 1권, 286, 287.

세상 대신에, 순종의 삶을 조건으로 온 천하 왕국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무궁 계속될 생명을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4.

겨울 집회 및 총회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12월 8일(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소리 외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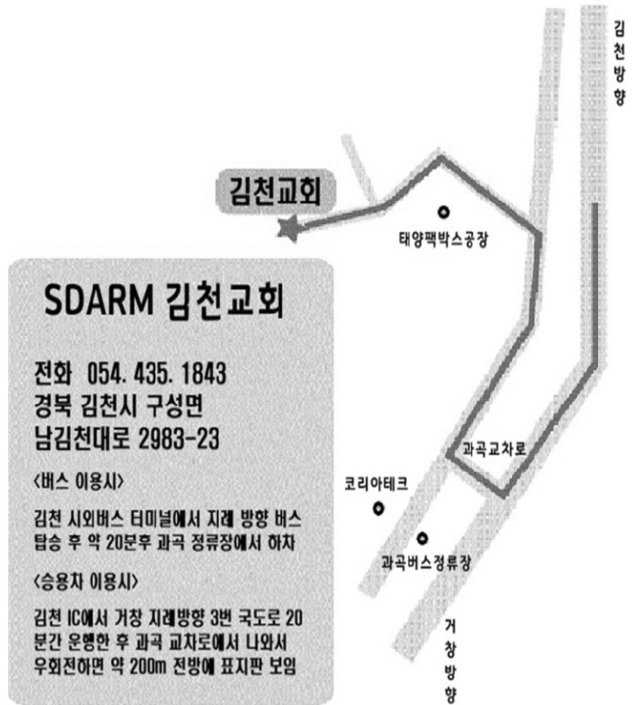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의의 기별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DARM 김천교회

전화 054. 435. 1843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

<버스 이용시>

김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례 방향 버스 탑승 후 약 20분후 과곡 정류장에서 하차

<승용차 이용시>

김천 IC에서 거창 지례방향 3번 국도로 20분간 운행한 후 과곡 교차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 약 200m 전방에 표지판 보임

◇ 집회 때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며 총회는 집회를 마친 후 1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파해야 할 기별

- 바비라 몬트로즈

기만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부터 온
복음을 들었는가?
오늘날에도 성경에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네.
지금에 매우 중요한 기별, 즉 현대 진리의 기별!

멀리 멀리, 언덕 너머,
골짜기 너머에서 가르쳐질 때
마음속에는 달콤한 화음이 울려 퍼진다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희망에 찬 영혼들이 깨어날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이 기별을 분별한다네!

부름은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온다네.
지금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죄와 그릇된 유혹을 버리고
은혜롭게 보내진
구세주를 신뢰하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간절히 갈망해야 할 분,
그의 희생은 그의 피를 통해 힘을 발산하네.
시대의 반석, 변함없는 그림자여.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
그것이 낡은 슬픔과 함께
모든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네.
예수님과의 교제,
하늘의 행복을 믿음으로
얼마나 갈망하는지!

지금 세상은 폭풍과 기근이 만연하고,
질병과 전쟁,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 항복하면,
우리의 소망은 아직 꽃피어 난다네.
하나님의 늦은 비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네.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영과 생명이라네.
권능과 함께 그것은
저장된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모든 것이 말해지고 행해지고,
우리 구세주가 오실 때
그분은 각자에게 특정한 보상을
가져다주실 것이네.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진리,
비웃음을 받고 멸시받는 동안;
조롱하고 비웃는 자는 지금 기별을 거부하는구나.
하지만 그들이 생각지 않을 때,
은혜의 시기는 끝날 것이네.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네!

그러므로 지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이며,
지금에 우리가 들판에 손을 뻗을 기회이네.
수확은 영혼을 거두기 위해 희어졌다네.
인침을 받은 소수의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네.

예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타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네.
그분의 힘 안에서 은혜로,
그분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으로!